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1. 8월

Vol. 18

ISSN 2713-9387

모음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를 위한 국제문화교류의 역할

50th
1971~2021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문화체육관광부 kocis 해외문화홍보원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FICE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Vol.18

목차

Ⅰ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4 1. 문화예술 : 미국,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중국, 폴란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호주, 스웨덴, 독일, 일본, 아르헨티나, UAE, 터키, 필리핀, 캐나다

18 2. 문화산업 : 스페인, 헝가리,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 UAE, 중국, 캐나다

24 3. 체육 : 카자흐스탄, 폴란드, 브라질, 캐나다

26 4. 관광 : 미국, 벨기에, 카자흐스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아르헨티나, 필리핀, 태국, 인도, UAE, 캐나다

35 5. 문화체육관광통계 : 터키, 아르헨티나, 필리핀

Ⅱ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39 1. 주스페인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며

42 2. 코로나19 이후 한·중·일 문화정책 비교

46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문화관계에서의 유럽연합(EU) 협력 국가 간의 문화·창의부문(CCS) 대응 정책 분석

Ⅲ 이달의 담론 :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를 위한 국제문화교류의 역할

Ⅳ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8월 활동계획

I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1. 문화예술 : 미국,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중국, 폴란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호주, 스웨덴, 독일, 일본, 아르헨티나, UAE, 터키, 필리핀, 캐나다
2. 문화산업 : 스페인, 헝가리,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 UAE, 중국, 캐나다
3. 체육 : 카자흐스탄, 폴란드, 브라질, 캐나다
4. 관광 : 미국, 벨기에, 카자흐스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아르헨티나, 필리핀, 태국, 인도, UAE, 캐나다
5. 문화체육관광통계 : 터키, 아르헨티나, 필리핀

장애·성별·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다양화

미국

코로나19 이후 대면 라이브 콘서트 개최

뉴욕시의 대형 콘서트장이 코로나19 이후 460여 일 만에 개장했다. 대면 라이브 콘서트는 만석이었으며, 관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고 입장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관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출처 : Koreadaily, 2021.6.21.)

문화예술계의 문화다양성 실천

뉴욕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동상 이전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루즈벨트 동상은 말을 탄 루즈벨트가 흑인과 인디언 원주민의 호위를 받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뉴욕자연사박물관측은 2020년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1]으로 촉발된 #BlackLivesMatter 운동의 일환으로 뉴욕시와 루즈벨트 유가족과 협의해 철거를 추진했다.

미주리주의 세인트 루이스(St.Louis) 미술관은 1879년 설립 이래 최초로 여성 관장에 한인 김민정씨를 발탁했다. 현재 코네티컷주 소재 박물관의 관장 겸 최고경영자로 있는 김민정씨는 오는 9월부터 11대 세인트 루이스 관장직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출처 : AP, 2021.6.23./St.Louis, 2021.6.22.)

1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파우더호른에서 발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조지 페리 플로이드(George Perry Floyd)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던 중 질식사 당한 사건

벨기에

청각장애인 통역사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

네덜란드어권 정부는 청각장애인 통역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교육의 취지는 청각장애인 통역사를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노동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재정 지원금은 총 7만 유로(약 9,423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각장애인 통역사 단기 교육
- 대상 : 수화 경험이 있는 교육생

- 지원금 : 3만 유로(약 4,038만 원)

• **네덜란드어 수화와 언어정규교육**

- 대상지 : 두 개의 언어를 수업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 참여
- 지원금 : 3만 유로(약 4,038만 원)

• **수화 축제**

- 지원금 : 1만 유로(약 1,345만 원)

(출처 :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문화부, 2021.6.28.)

문화 분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네덜란드어권 문화부는 문화 부문에 998만 유로(약 134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분야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문화추진전략팀의 18개 시행안에 따른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 부문 전반의 혁신 방식 도입**

- 목적 : 문화 부문의 혁신과 문화 비즈니스모델의 변화 촉진
- 주요내용 : 문화참여자 주도의 가치 창출, 제품 제작의 유통·제조·홍보의 개선
- 지원금 : 500만 유로(약 67억 원)

• **현대 미술품 구매**

- 목적 : 네덜란드어권의 전시 소장품을 위한 현대 미술품 구매
- 지원금 : 375만 유로(약 51억 원)

• **기타**

- 목적 : 문화청소년미디어부의 재정 지원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출을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 문화 분야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등

(출처 :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문화부, 2021.6.21.)

전시회 관련 보상법령 제정

네덜란드어권 정부는 주요 전시회의 운영 촉진 일환으로 보상법령을 제정했다. 국제 규모 전시회 개최 시, 전시관이 보험료와 대출 비용 상승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네덜란드어권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회 보증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보증 제도**

- 첫 부담은 대출 총액의 50%까지 네덜란드어권 정부의 보증 제도에 따라 처리, 잔여 부담금은 상업 보험에 의해 보장
- 중형 전시회를 위한 대출금 최소 5,000만 유로(약 674억 원)까지 지원

• 보증액 상한도
- 총 보증액 상한도 6억(약 8,085억 원), 연간 최대 12억 유로(약 1조 6,171억 원)의 보증금 지원

(출처 :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문화부, 2021.5.28.)

관객 유입을 위한 영화관 재개장 지원

프랑스어권의 영화관·시청각센터는 최소 8주 동안 1만 7,500개의 영화표를 온라인을 통해 1유로(약 1,300원)에 판매했다. 이번 재정지원은 약 7개월 만에 재개장하는 영화관에 관객을 유입하기 위해서이다. 프랑스어권 정부가 인정한 배급사와 영화관·시청각센터에서 제작 지원한 영화에 한하여 적용했다.

(출처 : 벨기에 프랑스어권 문화부, 2021.6.8.)

코로나19 전염병 위험 분석 도구 개발

벨기에 정부는 지역 내 행사와 문화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험모델을 개발했다. 행사 주최자는 벨기에 정부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해당 행사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다. 벨기에 정부가 개발한 코로나19 위험분석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이벤트위험모델(CERM) : 행사 주최자가 행사 정보를 등록할 시 녹색(Go) 또는 빨간색(No-Go)의 라벨 부여
• 코로나기반시설위험모델(CIRM) : 스포츠 경기장, 극장, 콘서트 공연장 등 실내운영시설에 적용가능, 지자체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등록 필수

(출처 : 벨기에 프랑스어권 문화부)

스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임 임명

스페인정부는 미켈 이세타(Miquel Iceta)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세타 신임 장관은 카탈루나 사회당 사무총장 출신이며, 풍부한 독서를 바탕으로 훌륭한 언어 능력과 유머감각을 지닌, 소통을 잘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세타 신임 장관은 예술인 법령과 관련 지원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꼽으며 법률 제정을 위해 재무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출처 : Deportes, 2021.7.10.)

주연상 성별 구별 폐지

제69회 산 세바스찬 국제영화제('21.9.17.~'21.9.25.)는 최초로 주연상의

이름에 남녀 구별을 폐지했다. 영화제 주최기관은 "성별차이와 연기 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 의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라고 밝혔다. 남녀주연상은 '최고 주연상'과 '최고 연기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출처 : LAVANGUARDIA, 2021.6.22.)

스페인 영화, 독립 국가기관 창설 교섭 시작

스페인 영화계는 집권 정부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기관 창설 교섭을 시작했다. 영화·영상예술기관(ICAA)는 현재 스페인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독립 국기기관의 성격을 지닌 국립영화진흥원으로 변경됐다. 영화·영상예술기관은 프리도 국립미술관처럼 당파적 논쟁에서 벗어나 독립적·창의적 기관 설립이 목표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은 현 영화법 개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EL PAIS, 2021.7.2.)

헝가리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의 자유 실천

국경없는기자회는 헝가리 정부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헝가리 정부는 2010년 5월 새로운 총리가 부임한 이후에도 기사 검열, 기자의 임의구속과 폭력 등 언론탄압을 지속해왔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는 "헝가리 정부가 언론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독립언론의 언론출판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헝가리 총리의 옹호적 기사만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정부수반이 국경없는기자회를 통해 '언론 자유의 탄압'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R.F.E.R.L, 2021.7.5./Euronews. 2021.7.5.)

중국

신인 작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홍콩 정부는 신인 작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원사업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육성하고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선발된 신인 작가의 작품들은 2021년 12월까지 출간될 예정이며, 해외 국제도서전의 '홍콩관'에 전시된다. 홍콩 정부는 본 지원사업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을 장려하고 출판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홍콩의 신인 작가 발굴·육성과 다양한 작품활동 기회 제공
- **대상** : 최근 3년 내 출판 경력이 없거나 1회 미만의 출판 실적이 있는 홍콩 내 거주 작가

• **지원분야** : 그림책, 과학서적, 무형문화유산
• **지원예산** : 최대 50만 홍콩달러(약 7,400만 원)

(출처 : 홍콩출판총회 공식 누리집)

국내외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운영

홍콩 복지국은 2016년부터 국내외 청년 작가들을 위한 '아티스트 레지던스 @V54'를 운영해왔다. 아트 레지던스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단기 거주 공간과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예술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쳤다. 홍콩의 예술가 입주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국내외 만 18~40세, 문화예술 분야에 2년 이상 종사, 창작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분야** : 시각 예술, 공연 예술, 문학, 융복합 제작, 문학, 전시 기획 행정, 문화 연구
• **지원내용** : 지역 예술의 부흥을 목표로 입주 작가는 대중 참여를 위한 전시회, 워크숍, 교육 활동 지원
• **의무** : 입주 작가는 공간 사용에 대한 기본 관리비 지불

(출처 : 홍콩 보량국)

온라인 공연 관객층 나이 제한

상하이 문화여행부는 온라인 공연 중개업계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공연 서비스와 영업행위를 금지했다. 해당 공식 누리집에서는「온라인 공연 중개업계 관리법」에 기초해 온라인 공연업계의 콘텐츠 데이터 관리 강화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제시했다.

• **제7조**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공연 서비스 제공 불가
• **제12조** : 허위과장 소비 유도 불가, 허위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공연자 수입 등 홍보 불가

(출처 : Weixin, 2021.7.12.)

대규모 전시회 포함 공공미술관 건립

7월 6일 개관한 푸동미술관은 총 건축면적 약 4만㎡에 6개 층으로 이뤄져 있고 1만㎡ 이상의 전시장으로 구성돼 있어 3-4개의 대규모 전시회의 동시 개최가 가능하다.

또한 푸동미술관은 새로운 공립미술관으로서 상하이 문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본 미술관은 전시, 교육, 문화 창조와 국제교류의 네 가지 기능을 강조해 국제문화관의 새로운 상징물, 국제문화예술 교류의 기반, 관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미술관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상하이시 문화관광국, 2021.7.6.)

제14차 5개년 계획 무형문화재 보호계획 발표

중국 문화관광부는「제14차 5개년 계획 무형문화재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보존과 보호의 우선, 활용과 전승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원칙** : 보존과 보호의 우선 활용·전승
- **시행기간** : 2025-2035년
- **6대 주요 과업** : 무형유산 조사 강화, 기록과 연구 강화, 무형유산의 인식과 관리 강화, 지역 무형유산의 보호 강화, 무형유산의 보급과 사회경제적 발전 강화
- **4가지 측면의 조치 이행** : 조직적 지도 강화, 정책 개선과 법률체계 강화, 조직 구성 강화, 비용 보장 강화

(출처 : 중국 문화관광부, 2021.6.9.)

폴란드

문화 공간의 인원 제한 완화 발표

폴란드 문화유산부는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같은 문화 공간에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실외 스포츠 행사에서는 참석자 인원을 500명까지 늘리는 제한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다중문화이용시설은 75%까지 이용자 수를 늘리고,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1.5m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출처 : 폴란드 문화유산부, 2021.6.23.)

카자흐스탄

'아동문학의 해' 선포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2021년을 '아동문학의 해'로 선포하고 아동도서 100권 발표회를 개최했다.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악토티 라임쿨로바(Aktoty Raimkulova) 장관은 발표회에서 "현대 카자흐스탄 아동문학 진흥은 미래를 위한 시대적·국가적 역점과제이며, 올해 말까지 최대 1,000권의 카자흐스탄 아동문학 서적이 출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 문학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아동 교육도서는 어린이를 위한 카자흐스탄 시 낭독, 카자흐스탄 전통문화 색칠교재, 카자흐스탄 전통도덕 동화책 등이 있다.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아동 교육도서를 통해 부모의 올바른 양육법과 민족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1.7.1.)

인도네시아

전통 음악회 개최와 문학 서적 보급 계획 추진

인니 문화교육연구기술부는 자국의 문화향상을 위해 전통음악회 개최와 문학 서적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 인도네시아 음악혁신 경연대회'는 인니의 전통음악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또한 인니 문화교육연구기술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문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20종의 책과 748종의 자료를 새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니 정부는 2021년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며, 인니 학생들이 유네스코(UNESCO)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연간 3권 이상의 책을 읽도록 권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출처 : Republika, 2021.7.2./Kompas, 2021.6.21.)

호주

원주민 현대음악산업 지원 확대

호주 연방정부는 원주민의 현대음악 산업에 대한 2차 지원을 확대해 8개 기관에 각 60만 호주달러(약 6억 원)를 지원했다. 호주원주민 혼 켄 와야트(Hon Ken Wyatt) 장관은 "호주의 고유한 원주민 음악은 수만 년 동안 뿌리를 두고 있는 유산이며, 호주 국가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게 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재능있는 원주민 음악가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출처 : Paulfletcher, 2021.7.5.)

예술문화펀딩 프로그램 운영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예술문화펀딩프로그램(ACFP)에 2,400만 호주달러(약 204억 원)를 추가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10% 증액되며 중소규모의 예술단체와 개인에게 영구적으로 지원된다. NSW 주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NSW주 예술부 돈 하원(Don Harwin) 장관은 "문화예술은 창의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며, 예술에 대한 투자는 NSW주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언급했다.

(출처 : NSW주 정부, 2021.7.9.)

스웨덴

공공대출 보상제도 인상

스웨덴 정부는 공공대출 보상제도[2]의 기본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작가, 삽화가, 사진작가는 2022년부터 자신의 작품 대여 관련 더 높은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공공대출 보상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도서관에서 작품이 대출되는 횟수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

- 2022년 부터 1.92 크로나(약 255원)에서 2 크로나(약 265원)로 인상, 2023년도 작업당 2.4 크로나(약 319원)로 인상될 예정
- 2022년 총 보상액은 1억 8,473만 크로나(약 245억 1,763만 원)로 2019년 대비 370만 크로나(약 5억 원) 증가

(출처 : svt, 2021.7.1.)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계 위기 지원금 추가

스웨덴 예술위원회는 이전해 발표했던 위기생존 지원금 7억 5,000만 크로나(약 995억 원) 중에서 4억 5,800만 크로나(약 608억 원)를 스웨덴 예술위원회를 통해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스웨덴 예술위원회 카아사 라빈(Kajsa Ravin) 국장은 "문화예술산업이 가을에 재개 예정이지만, 추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웨덴 영화 연구소 1억 2,400만 크로나(약 165억 원)
- 예술가 위원회 9,200만 크로나(약 122억 원)
- 작가기금 1,800만 크로나(약 24억 원)
- 사미의회 300만 크로나(약 4억 원)
- 전국 문화예술계 종사자 모임 1,500만 크로나(약 20억 원)
- 무용·음악·연극 교육과정 1,700만 크로나(약 23억 원)
- 지역문화협력 사업 2,300만 크로나(약 31억 원)

(출처 : Kulturradet, 2021.6.24.)

독일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예술가와 창작자에게 장학금 지급

독일 연방정부는 '문화, 새로운 시작'의 지원사업을 통해 16,000명의 개인 예술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프로그램은 개인 예술가와 창작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5,000유로(약 678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음악저작원협회(GEMA)와 공연예술·음반제작 협회(GVL)는 각 3,000만 유로(약 407억 원), 저작권 공동관리 협회(VG Bild-Kunst)는 1,500만 유로(약 203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출처 : 독일 연방정부, 2021.7.12.)

독일 중부 지역의 문화유적지 지원 합의

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와 작센-안할트·튀링겐 주정부는 중부지역의 성곽과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진흥을 위한 행정 협약을 체결했다. 작센-안할트 문화재단은 튀링겐 궁전정원 재단과 공동으로 문화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총 4억 유로(약 5,42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지원금은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두 재단에 각 1억 유로(약 1,355억 원)씩 지원해 조성된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작센-안할트와 튀링겐 주에 1억 5,000만 유로(약 2,033억 원)를 추가 지원해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출처 연구, 문화관광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연방문화미디어부는 "중부지역의 문화유산은 독일의 정체성을 갖게 하며, 독일 통일이 된 지 30년이 지난 후에도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 독일 연방공보처 보도자료, 2021.6.25.)

'문화, 새로운 시작' 정책 마지막 보고

독일 연방정부는 '문화, 새로운 시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0억 유로(약 2조 7,101억 원)를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분야의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약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네 번째 지원 분야는 박물관 등 전시시설, 1인 라디오 방송과 그 외 문화시설의 지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물관·전시장 등 문화전시시설 지원
- 대상 : 지역 박물관, 민간 박물관, 전시관, 디지털 도서관
-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전시관 운영 재정난 회복
- 주요내용 : 독일 고고학 협회를 통해 지원되며, 독일 디지털 도서관의 문화유산 등 수백만 자료 디지털화 제작 지원
- 지원금 : 지역 박물관 등 운영 지원 최대 2,500만 유로(약 339억 원)

• 1인 라디오 방송
- 대상 : 개인 라디오 제작자
- 목적 : 장기적으로 라디오 환경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것 방지
-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개인 라디오 제작자 지원
- 지원금 : 1,200만 유로(약 163억 원)

• 그 외 문화 활동 시설

• 사회문화펀드협회(Fonds Soziokultur e.V.)
- 주요내용 : 문화와 미디어 교육, 문화 관련 시설, 예술단체 프로젝트,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등 지원

- 지원금 : 1,000만 유로(약 136억 원)

• **사회문화연방협회**(Bundesverband Soziokultur e.V.)

-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학관, 문화센터, 사회문화센터 지원
- 지원금 : 2,500만 유로(약 339억 원)

• **문화센터, 문화의 전당, 사회문화센터**

- 주요내용 : 문화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해 지역 내 문화생산 재개 유도
- 지원금 : 최대 1,500만 유로(약 203억 원)

• 서커스

- 주요내용 : 코로나19 관련 지원, 서커스교육 기관을 통해 지불
- 지원금 : 최대 500만 유로(약 68억 원)

(출처 : 독일 연방정부)

일본

예술단체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일본 문화청은 미리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을 예술단체 156곳 중 추첨을 통해 78개 단체의 2,000명에게 우선 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극단 단원과 국립박물관 종사자는 7월 5일부터 집단 백신접종에 참여했다.

현재 일본 내 직업군별 코로나19 접종신청은 백신확보 문제로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일본 문화청은 백신이 추가 확보되면 문화예술인 1만 8,000명에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일본 문화청, 2021.7.5.)

아르헨티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연기 LAB'설치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수어 무대예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수어 연기 LAB'을 설치했다. 참가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청각장애인, 중급 이상 수어 구사자, 장애인 교육 분야의 종사자이다.

본 사업의 참가자들은 무료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연극, 무용, 공연 등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예술작품과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8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출처 : 아르헨티나 문화부, 2021.7.13.)

아르헨티나 세르반데스 수어 무대예술가 육성을 위한 '수어 연기 LAB'

(출처 : 아르헨티나 문화부)

UAE

디지털 아트센터 개장

가장 큰 디지털 아트센터 중 하나가 두바이 몰(Mall)에 개장했다. 인피니트 데 루미에르(Infinity des Lumieres) 아트센터에는 2,700㎡ 크기에 130여 개의 프로젝터, 58개의 스피커, 3,000개의 HD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해 몰입형 예술이 구현됐다. 디지털 아트센터 캐서린 오리올(Catherine Oriol) 관장은 "UAE 정부의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 사상가, 사업가, 지역, 국내외 예술가들과 손을 잡고 학술토론회를 통해 예술의 융·복합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바이 문화예술 당국은 "독특한 디지털 예술 경험을 통해 미래 도시로서 UAE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The national news, 2021.7.2.)

두바이의 '인피니트 데 루미에르 아트센터' 전시 작품

(출처 : The national news)

터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지원

터키 문화관광부는 65편의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금 526만 8,000 리라(약 7억 744만 원)를 편성했다. 영화부문은 4,800만 리라(약 65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개발 프로젝트 총 88개 : 178만 2,000 리라(약 2억 3,932만 원)
- 장편 영화 제작과 공동 촬영, 유통·홍보 총 26개 : 2,500만 리라(약 33억 5,825만 원)

(출처 : 터키 문화관광부, 2021.6.25.)

필리핀

'창의산업' 육성 정책 추진

필리핀 무역통상부는 창의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초석 마련에 돌입했다. 필리핀의 지식인과 예술계에서는 한국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한류 콘텐츠의 대폭 성장은 필리핀에서도 창의산업의 육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다.

이에 필리핀 무역통상부는 창의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회복을 위한 창의산업의 고부가가치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필리핀 정부기관의 창의산업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리핀 무역 통산부**
  - 협력기관 :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필리핀 창의경제위원회
  - 주요활동 : 필리핀 창의경제의 촉진과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필리핀 창의경제위원회**(CECP)
  - 목표 : 2030년까지 필리핀을 아세안(ASEAN) 지역 내 창의산업의 규모와 가치, 인재와 콘텐츠의 경쟁력 부문에서 1위 격상
  - 육성 분야 :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개발, 디자인

- **창의산업법**
  - 목표 : 필리핀 창의산업개발위원회 설립
  - 참여기관 : 필리핀 무역 통상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 관광부, 정보통신기술부, 창의산업부
  - 투자금 : 법안 통과 시 50억 필리핀 페소(약 1,145억 원) 배정,

자금 대출과 창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벤처 자금
각 2억 5,000만 필리핀 페소(약 57억 원)

(출처 : The Manila times, 2021.7.16./Manila Bulletin, 2021.6.6./Philippine Star, 2021.5.15.)

캐나다

문화, 예술, 스포츠, 문화유산 부문의 지속적인 지원 결정

캐나다 정부는 문화, 예술, 유산과 스포츠 부문에 19억 캐나다달러(약 1조 7,472억 원)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금은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회복과 성장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구 기금
- 대상 : 예술, 문화, 유산, 스포츠
- 기간 : 2년간
- 지원금 : 3억 캐나다달러(약 2,759억 원)

• 재개 기금
- 대상 : 축제, 문화행사, 야외극장 공연, 유산기념행사, 지역 박물관, 아마추어 스포츠 행사
- 기간 : 2년
- 지원금 : 2억 캐나다달러(약 1,839억 원)

(출처 : 캐나다 정부, 2021.6.28.)

문화유산 관련 단체 지원

캐나다 정부는 재개관을 하는 문화유산 기관과 박물관 단체와 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박물관지원프로그램(MAP)을 통해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유산단체와 박물관 재개장
- 기간 : 2년간
- 지원금 : 캐나다 전역의 문화유산 단체 재개장 4,100만 캐나다달러(약 377억 원), 문화유산 수집품 보유 단체 5,300만 캐나다달러(약 487억 원), 캐나다 6곳 국립 박물관과 국립 전장(戰場) 위원회 3,400만 캐나다달러(약 313억 원)

• 캐나다 역사와 디지털 수집품
- 기간 : 3년간
- 지원금 : 캐나다 전역의 박물관의 정보와 수집품 디지털화 2,300만 캐나다달러(약 212억 원)

• 문화유산 부문의 일자리 지원

- 기간 : 2년간
- 지원금 : 1,240개의 일자리와 인터십 지원 1,200만 캐나다달러
  (약 110억 원)

(출처 : 캐나다 정부, 2021.6.3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페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의 스페인 공영방송 지원 의무화

스페인 정부는 2022년부터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유튜브(YouTube)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 스페인 공영방송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규를 마련했다. 해당 법규 내용은 다국적 스트리밍 기업들이 스페인 공영TV 지원 명목으로 스페인에서 얻은 연간 소득의 1.5%를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며, 이 새로운 법안은 2022년 1/4분기 하원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 EL PAIS, 2021.7.2.)

스페인어권 오디오 시장의 디지털 가속화

2년마다 실시하는 팟캐스트 관련 설문조사[1]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모바일과 태블릿을 통해 프로그램을 청취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2년간 팟캐스트 이용자 70%의 청취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팟캐스트 운영자는 "오디오 소비문화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존재감을 갖게 했고, 전 세계 청중이 듣는 팟캐스트는 창의적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스페인어권의 오디오 시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 EL PAIS, 2021.7.9.)

1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칠레, 페루, 스페인, 미국 지역에 3,000명을 대상으로 격년 마다 실시하는 팟캐스트 설문조사 기관

헝가리

영화 제작소 건립 추진 계획

헝가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북부지역에 영화제작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다페스트 지자체는 7월에 본 계획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마블 스튜디오 등 미국의 영화 제작사들이 이번 영화 제작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 2,500㎡ 규모의 건물 2동에 각 4개의 제작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160,000㎡ 규모의 조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헝가리영화진흥원(NFI)이

소유한 마필름(Mafilm)은 부다페스트 복동쪽 교외지역에 9,600㎡의 4개 영화 제작소를 확충함으로써 현재 규모 약 12,200㎡가 된다.

(출처 : Napi.hu, 2021.6.28.)

미국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영화 소비 경향 분석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기에 미국 내 영화관 운영이 재개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예전과는 달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 제작사는 극장과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신작을 동시에 개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극장 업계는 영화 제작사들의 이와 같은 행보에 반발했다. 실제 엔터테인먼트 전문지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박스오피스(Box office) 수익은 코로나19 이전의 19% 수준에 그쳤다.

(출처 : Washingtonpost, 2021.6.30./Variety, 2021.7.6.)

인도네시아

디지털화를 통한 인니 문화진흥 촉진

인니 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진행하는 디지털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자국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한 웨비나[2]를 개최했다. 웨비나의 한 발표자는 "인도네시아는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화적 소양과 이해가 부족해 자국문화의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해당 발표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인니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광을 제한하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인터넷을 통한 문화공간은 여전히 활용 가능하다."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강조했다.

2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 웹 사이트 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회의, 실시간 정보교환, 쌍방향 프레젠테이션 등을 의미

(출처 : Industrycoid, 2021.7.2.)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로컬콘텐츠 개발 강조

인니 문화교육연구기술부는 넷플릭스(Netflex)에서 주최한 회의에서 인니 창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콘텐츠로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동남아시아 지사의 관계자는 인니에도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영화 제작사들의 관심여부에 따라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 Antaranews, 2021.6.30.)

호주

방송개정안 통과

호주 연방정부는 방송 운영을 개선하는 방송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멜버른과 아들레이드 지역은 개정법에 따라 해당 지역 TV 방송의 온라인 서비스 갱신을 3년 추가 승인했다. 해당 법은 구독 TV의 자막 약정과 관련된 규칙을 간소화했다. 반면, 해당 두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TV 서비스[3]에 대한 면허는 금지했다.

(출처 : 호주 정부,2021.6.23.)

3 모바일 앱(App) 서비스의 일종

일본

'패스트 영화(Fast Movie)'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조치

일본 영화단체는 '패스트 영화[4]에 대한 법적 조치 움직임을 보였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보고서에 따르면, 패스트 영화의 피해누계액수는 2021년까지 950억 엔(약 9,902억 원)이상으로 집계됐다. CODA는 패스트 영화가 인용범위를 넘어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많은 패스트 영화의 영상은 영화 결말까지 노출되어 사람들이 영화 본편을 관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영화업계의 수익에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 NHK, 2021.6.20.)

4 영화 내용을 10분 편집해 무단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투고하는 동영상

아르헨티나

디지털 시대에 따른 영화법 개정안 제안

아르헨티나 영화단체는 현 영화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1994년에 제정된 영화법은 디지털 기술발달로 인해 시청각물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아르헨티나영화감독협회(DAC), 극본가협회(ARGENTORES), 독립영화사(PCI) 등의 영화계 단체들은 '아르헨티나 시청각공간'이라는 입법제안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제안한 시청각물 제작법안은 현재 특정기업에 편중된 언론·통신 산업의 배급구조를 다양화하고 중소단위의 영화에 대해 균등한 배급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아르헨티나 국립영상위원회(INCAA)는 연방정부의 기구로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 정책과 영화인 육성사업 관련 추진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출처 : 아르헨티나시청각공간 공식 누리집, 2021.7.13.)

태국

디지털 콘텐츠 수출 판로개척 방안 추진

태국 상무부는 태국을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중심국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현재 한국, 일본, 대만 3개 국과의 콘텐츠 공동작업과 용역발주가 늘고 있어 태국을 향후 수출 증대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전망했다. 주요 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캐릭터이며 태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2021년 300억 바트(약 1조 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2020년 대비 10%이상 성장했다. 드라마와 게임 산업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성 로맨스 드라마 제작·수출
- 성과 : 3억 6,000만 바트(약 126억 원) 수출 계약
- 주요내용 : 태국의 동성 로맨스는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20년 대비 온라인 시청자 328% 증가

• 게임산업
- 성과 : 매출액 290억 바트(약 1조 147억 원)
- 주요내용 : 수출전담기구 설립, 태국 디지털밸리(EECd)[5] 내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등 지원계획 발표

(출처 : Naewna, 2021.7.5./MGR Online, 2021.7.4.)

5 2017년에 설립됐으며 태국판 실리콘밸리 도약을 목표로 추진

인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 확장

인도 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은 2025년도에 553억 달러(약 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내 관련 분야의 시장규모는 2020-2021년 팬데믹 여파로 줄어들었으나, 2022년을 시작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증가한 온라인 시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출처 : Pwc 보고서)

UAE

언론규제사무소 설립

UAE 문화청년부는 '언론규제사무소'를 설립해 국립언론의회의 업무를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규제사무소는 위성 채널, 라디오국, 신문, 잡지 부문을 장려하고 미디어 자유구역(Media Free-zone) 홍보 등의 정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새롭게 신설된 본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조사와 선행연구 준비, 미디어와 출판 관련 요구 사항과 선택

- 자유구역에서 전자 출판, 미디어 전문가, 해외 미디어 통신원 등 UAE 내 미디어와 미디어 활동의 조직 구성과 허가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정, 기초 연구, 제안 등 초안 작성
- 자유구역에서 생산되는 미디어 콘텐츠 포함해 해당 국가의 미디어와 미디어 활동의 구성과 면허허가를 위한 법률, 규정, 기초 연구 등 초안 작성
- 미디어의 활동과 윤리 제안,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 보장, 허위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뉴스와 비전문적인 미디어 관행 퇴치

(출처 : The national news, 2021.6.23.)

중국

'팬덤문화 무질서 교정' 특별조치 시행

중국 중앙사이버공간관리국은 건전한 팬덤(Fandom)문화[6]를 위해 2개월 간 '팬덤문화 무질서 교정'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조치는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팬덤 활동을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성년자 대상 상업 활동, 고액 소비 내역, 팬덤 간의 비방과 욕설, 소문 유포, 사생활 침해, 팬들의 재산 과시, 사치유도 행위, 팬 무리를 이용한 집단 댓글 등이다.

6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과 우정의 감정을 특징으로 하는 팬들로 구성된 하위문화

(출처 : 중국 중앙사이버공간관리국, 2021.6.15.)

영화산업의 안전한 제작환경 조성과 코로나19 방역업무 시행 통지 발표

중국 영상국은 '영화산업의 안전한 제작과 코로나19 방역업무 시행'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영화의 안전한 제작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예방과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의 영화산업 재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화산업의 안전 제작에 대한 점검** : 영화 촬영, 제작, 상영 장소의 전력설비, 케이블, 소화 장치, 도구 등 안전검사 실시, 잠재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사후 개선
- **코로나19의 방역 강화와 상시 방역 통제** : '영화상영장소의 영업 재개 관련 코로나19 방역 지침(제3판)'의 규정에 따라 상시적 방역업무 실천, 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이동 제한, 상영 배치 간격 조정, 직원 검사, 위생 점검, 긴급처리 점검 실시
- **방역 긴급처리체계 강화와 안전관리 시행** : 지역별 각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등의 법규 엄격히 준수, 영화관의 소방안전과 관람객의 안전 보장

• **위험 의식 강화, 고위험성 행사 관리 통제** : 지역별 각 기관의 영화 관련 행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와 통제, 영화 상영장소 내 상업 행위 등 제제해 대규모 인원의 밀집 차단, 영화 주관부처의 영화촬영제작 활동에 대한 위험 관리통제, 영화관 신설과 개조 등의 시공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제작 관련 법규의 이행 독려해 중대한 사고 미연에 방지

(출처 : 인민일보, 2021.6.17.)

캐나다

온라인 콘텐츠 다양성에 대한 지침 발표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다자간 이해 협력 단체를 대표해 온라인 콘텐츠 다양성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성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는 허위 정보의 대응, 민주적인 절차의 참여 확대, 건강한 사회적 담론 생성과 참여에 기여한다. 온라인 콘텐츠 다양성의 지침은 다음 네 가지 사안에 중점을 두었다.

-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생성, 접근과 검색
- 콘텐츠 제작자의 적절한 보수와 경제적 생존권 보장
-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정보의 출처 공개, 허위정보 대응
- 온라인 콘텐츠의 알고리즘 과정의 투명성

(출처 : 캐나다 정부, 2021.6.30.)

3. 체육

카자흐스탄

지방정부와 대중 스포츠 발전의 중요성 합의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3개의 지방정부와 함께 생활체육과 스포츠 분야 현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3개의 도시지역에 100개의 복합스포츠문화 단지 조성, 스포츠 단체에 재정지원, 지역별 다양한 스포츠 행사 조직현황과 역점과제 점검 등이다.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악토티 라임쿨로바(Aktoty Raimkulova) 장관은 대통령 연설을 인용해 대중 스포츠 발전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1.6.8.)

폴란드

'도쿄올림픽 2020' 메달리스트 보상 지급액 공개

폴란드 올림픽위원회(POC)는 '도쿄올림픽 2020' 메달리스트들의 보상금액을 공개했다. 개인전 선수에게는 금메달 12만 즈워티(약 3,564만 원), 은메달 8만 즈워티(약 2,375만 원), 동메달 5만 즈워티(약 1,485만 원)가 지급될 예정이다. 단체전에서는 금·은·동 기준으로 각 9만 즈워티(약 2,674만 원), 6만 즈워티(약 1,783만 원), 3만 7,000 즈워티(약 1,099만 원)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 Polsat news, 2021.7.6.)

브라질

스포츠 분야 관계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남미축구연맹(Conmebol)은 운동선수, 심판, 코치 등 스포츠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브라질 연방정부는 연맹으로부터 기증받은 2만회 분 중 5,000회 분은 축구협회에 기증했다. 남미축구연맹은 백신 기부는 브라질 국민과의 연대감을 갖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출처 : Uol, 2021.7.8.)

캐나다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국제 도핑테스트에서는 예외약물 불인정

캐나다 정부는 2018년 레저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국제규범은 준수하겠다고 공표했다. 한편, 캐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WADA 국제선수 포럼을 통해 "마리화나는 경기력 향상과 관련이 없는 약물이므로 금지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대학부 운동선수들은 2020년 8월부터 마리화나 도핑테스트에서 제외되었으며, 대학스포츠 또는 캐나다육상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가능하다. 단, 국가대표선수단과 국제대회 참가 시, 캐나다 운동선수들은 국제 규범에 따라 마리화나 도핑테스트에 참여해야 한다.

(출처 : 캐나다스포츠윤리센터, 2021.5.16./2020.8.20.)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발목잡힌 관광산업, 지역관광으로 대응 모색

미국

캘리포니아,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검증 실시

캘리포니아 보건 당국은 주민들에게 디지털 코로나19 백신기록 방법을 공개했다. 디지털 코로나19 백신기록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급한 종이서류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며, 간단한 개인정보 가입 후에 부여받은 QR 코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백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기록은 대규모 실내 모임(콘서트, 스포츠 행사), 숙박 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시민들은 백신여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다수 국가는 여행객들에게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여행객들은 디지털 코로나19 백신기록을 여행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 Sundial, 2021.6.29.)

하와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자국 방문객 입국제한 해제

하와이 주정부는 7월 8일부터 격리면제 대상자를 미국 전역 코로나19 백신접종자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에 하와이 주의 사회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되어 실내 25명, 실외 75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와이 외래 방문객은 격리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백신접종 기록을 하와이 방문객 추적 관리 시스템(COVID-19 Safe Travel)에 등록해야 하며, 비행기 탑승 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하와이 주정부는 하와이 내 백신 보급률이 70%에 이르면, 추적 관리 시스템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Travelweekly, 2021.7.29.)

오하이오, 백신여권 도입 금지 법안 발표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은 미국 연방정부가 발의한 백신여권 발행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여행 편의를 위해 백신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권 침해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미 공화당은 백신 접종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해왔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기업 등에서 백신여권 도입을 금지했다.

(출처 : The Columbus Dispatch, 2021.6.24.)

벨기에

왈로니아관광패스 세 번째 배포

프랑스어권 지방정부는 왈로니아관광패스 2만 5,000장을 온라인을 통해 배포했다. 관광패스는 QR코드 형식으로 발급되며, 왈로니아의 관광명소, 박물관, 숙박시설 등 약 700개의 기관과 업체에서 사용가능하다.

(출처 : 왈로니아 정부, 2021.7.5.)

관광업계의 재개 지원

네덜란드어권 지방정부는 지역 내 272개의 관광업계에 3,000만 유로(약 406억 원)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재정난을 극복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편성됐다. 지원 분야는 위생시설 개선, 친환경 설비투자, 업무 디지털화와 운영 전문화이다. 지원금의 50%는 관광시설의 위생 개선에 배분됐고 30%는 친환경 설비, 나머지는 디지털·전문화 운영 구축에 사용됐다.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2021.7.1.)

제6회 세계 미식 포럼 개최

세계관광기구(UNWTO)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브뤼헤(네덜란드어권 지역)에서 '제6차 세계 미식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전 세계의 관계자들에게 현지 음식을 알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6회 포럼의 주제는 '미식 관광, 농촌 관광과 지역개발 촉진'이다. 네덜란드어권 지방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미식·관광 부문의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2021.6.8.)

지역 주민의 67% 이상 지역관광 개발 찬성

네덜란드어권 지역 주민의 65%이상이 해당 지역관광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스헬드섬(Scheldeland) 주민의 67%는 지역관광 개발을 찬성했다. 또한 스헬드섬 지역주민의 44%는 관광 개발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뫼즈벨리 지역 주민의 70%도 지역관광 개발에 찬성했으며, 92%의 주민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이 보호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출처 : 플랜더스 관광청, 2021.6.10./2021.6.18.)

카자흐스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적 공유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투르크평의회[1]에 참가해 포스트 코로나 관광산업 회복, 협의회 회원국 간의 항공노선 운영재개, 실크로드 종합관광 상품개발 공동추진 등을 논의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실적을 공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르크어권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총 5개 국가의 국제기구

- **귀국 지원**
  - 재외 카자흐스탄 국민 5,913명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귀국 조치
- **관광업계의 실질적 지원**
  - 다방면 세금 감면 혜택
  - 대출금 상환 연기 제도 시행
  - 기업 대상 이자율 연 6% 통합
- **기타**
  - 카자흐스탄 정부의 비자면제 대상국가 확대, 국제항공노선 추가
  - PCR 테스트와 공용 백신여권 등 다른 국가와의 적극 협력 준비 등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1.6.24.)

일본

일본의 지역 캐릭터(유루캬라) 성공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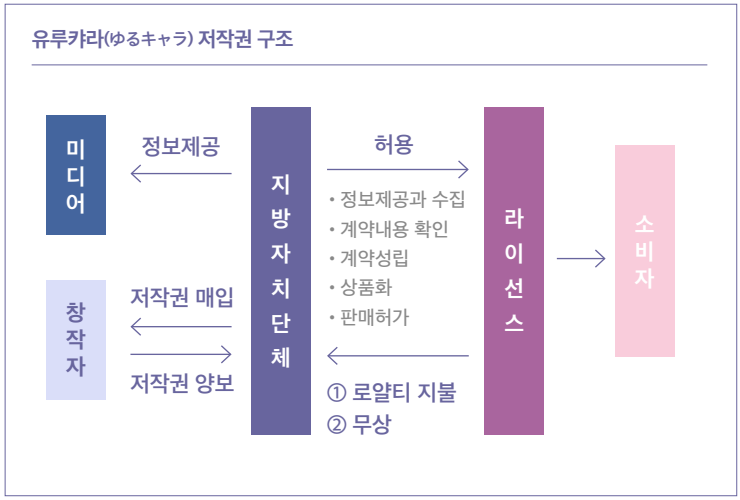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지역 캐릭터(ゆるキャラ, 유루캬라)[2]를 개발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현재 일본의 마스코트는 2021년 기준 약 4,000개가 등록돼 있으며, 1,000여 종의 마스코트가 지역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 캐릭터의 성공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느슨하다'라는 의미인 '유루이(ゆるい)'와 캐릭터의 일본식 표현인 '캬라쿠타(キャラクター)'를 합한 신조어로 지역을 대표하거나 기업과 단체를 홍보하는 캐릭터

- **지역 주민들이 만든 캐릭터** : 제작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의 스토리텔링으로 타 지역사람에게 친근한 이미지 구축
- **대회 개최를 통한 참여기회 제공** : 전국 4,000여종의 캐릭터가 참가하는 유루캬라 그랑프리 대회[3]를 계기로 지역 마스코트의 대유행 촉발
- **인기 캐릭터 무료 이용** : 각 지자체에서 지역 마스코트의 저작권 무료 사용으로 TV, 신문, 잡지 등 미디어 노출을 늘려 간접적인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 지역 상품화 홍보와 기업의 지역상품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 창출에 기여

3 일본 국민들의 투표로 캐릭터 순위를 정하는 대회

(출처 : yano, 2021.7.6./NRC, 2020.11./2020 komazawa-u 보고서)



(출처 : 2020 komazawa 보고서)

코로나19 백신여권 조기 도입 요청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일본 정부에 백신여권의 조기 사용에 대해 건의했다. 본 요청은 경단련이 의료관계자를 포함 항공, 교통, 여행, 금융 등의 기업과 협회와 함께 논의를 거친 결과이다.

백신여권의 활용은 출입국 활용(검역 절차 신속화 등)과 자국내 활용(행사 요건 완화 등)이라는 두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사회적 경제활동의 조기 회복을 목표로 한다.

(출처 : NHK, 2021.6.24.)

중국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이천문관 개관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이천문관이 7월 17일 개관했다. 해당 천문관의 건축면적은 3만 8,000㎡이며 3대 주제 전시관과 특색 전시관 등으로 조성됐다. 건축물은 천체 운행궤도로 구성됐으며 천체 운행 규칙을 표현했다. 상하이천문관의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3대 주제 전시관 : 지구, 우주, 대장정
- 특색 전시관 : 우주에 대한 궁금증, 신비로운 별, 화성 탐험

(출처 : Baijiahao, 2021.7.11.)

공업관광 발전 추진 발표

중국 문화관광부는 산업정보화부 포함 8개 부처와 공동으로 「공업문화 발전 추진 실시방안(2021-2025)」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공업문화

특성을 지닌 관광 시범단지와 공업문화 교육단지를 조성해 공업정신을 고양시킬 것 등이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공업관광의 역사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공업관광 관련 기준과 규범 마련
- 현지 공업유산, 노후 공장, 공업박물관, 현대 공장부지 등 공업문화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 프로그램 시범 기지 건설 지원
- 공업문화 체험 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공업관광 코스 출시 독려
- 문화와 관광이 결합해 새로운 소비문화 영역 확대 지원

(출처 : 중국 문화관광부, 2021.6.9.)

홍색관광 100개 코스 발표

중국 문화관광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포함 7개 부처의 협업으로 '창당 100년 홍색관광 100개 코스'를 발표했다. 홍색관광은 중장년층에게는 역사를 돌아보고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지로 구성 돼있고, 젊은 세대에게는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홍색관광코스의 방문자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억 4,000만 명에서 14억 1,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홍색관광 100개 중 몇 가지 관광코스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주요 과학기술과 기반시설 건설** : 하이난 위성 발사기지, 항저우 미래과학기술도시, 강주아오 대교,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베이징-장자커우 동계 올림픽 경기장 등 20개의 코스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 제시
- **경제성장과 농촌 활성화** : 중국의 빈곤 극복, 농촌 진흥, 생태 문명 건설 등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28개 관광코스 마련

(출처 : 중국 문화관광부, 2021.6.11.)

인도네시아

인니 입국 시 외국인 백신접종증명 제시

인니 정부는 7월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2차까지 완료한 백신접종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한다고 발표했다. KITAP(장기체류비자)·KITAS(단기체류비자) 소지자와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도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입국자는 격리기간 8일 동안 인니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출처 : Kompas, 2021.7.4.)

호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해외 입국자수 제한

호주 연방정부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해외 입국자 수를 절반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민간 항공편을 이용한 호주 입국자 수는 6,000명에서 3,000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호주 연방정부는 호주 국민 송환 항공편을 증편해 해외에 있는 호주 국민들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 국민은 최소 3만 4,000명에 달한다.

(출처 : SBS, 2021.7.3.)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세금 감면 혜택 지원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 주정부는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관광업체에 지원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7만 5,000 호주달러(약 6,370만 원), 정규직원 20명, 연간 임금 청구액 1,000만 호주달러(약 85억 원) 미만인 업체이다. 호텔과 클럽업계는 게임기계 세금 납부 기간 연기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출처 : abc,2021.6.29.)

베트남

관광 상품 출시 기준 발표

하노이 관광부는 지역 관광산업을 재개하기 위한 관광 상품 출시 관련 문서를 발표했다. 지역 여행사는 공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당국의 권고를 준수하며, 꽝닌, 닌빈, 손라 등 하노이 정부가 인정한 안전지역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90~95%가 폐업했고 관광 분야 근로자의 90% 이상이 일자리를 상실했다. 하노이 관광부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을 재개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자본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하노이 관광청)

아르헨티나

겨울방학기간 지역관광 자국 관광객 맞이 준비

아르헨티나 관광체육부는 지방정부와 협업해 겨울방학기간 지역관광을 홍보했다. 남부지방 주정부는 7월에 스키장 재개장을 허가했으며, 북부지방 주정부는 관광객의 방문을 허가하는 등 자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출처 : 아르헨티나 관광체육부, 2021.7.13.)

필리핀

관광업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제공

필리핀 관광부는 보라카이 관광업계 종사자 3,000명에게 백신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라카이 지방정부가 선별한 접종 종사자는 숙박업소, 요식업소, 운송업소, 여행 가이드, 항공·항만 근무자 등이다.

(출처 : Manila Times, 2021.7.11.)

태국

내·외국인 무격리 입국정책 한계점 개선 추진

태국 관광청은 7월 1일부터 실시한 푸켓 지역의 샌드박스 정책[4] 정책 이행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4 7월 1일부터 푸켓 지역에 한정해 백신을 접종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태국의 관광 진흥정책

• **태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집단면역 달성 의문 제기**
- 태국의 백신 공급일정 차질과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집단면역 달성에 대한 의문 제기
- 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방콕과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이동 제한령 시행

• **실질적인 수혜대상 한정, 효과 미비**
- 태국 관광청 숙박업소 인증을 받은 대형호텔 위주의 예약
- 중소규모 호텔 영업재개 시 인건비 등의 비용 발생으로 운영 부담
- 관광객의 특정지역 선호로 인한 시내유입 인원 부족으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 미흡

• **시의성**
- 현재 외래 관광객 성수기 국가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
- 그 외 국가의 외래 관광객 선호 방문 시기 분석 미흡

• **높은 물가**
- 공항에서 시내까지 편도 1,000 바트(약 3만 5,000원) 이상의 택시비 요구 등 바가지요금 극성

• **인력·예산 부족**
- 코로나19 확산방지의 관리체계 유지 인력과 예산 부족

(출처 : Bangkokbiz News, 2021.7.5./Bangkok Post, 2021.7.7.)

인도

월정액 지급제 항공서비스로 고가 시장 공략

인도의 스타트업이 월정액 전용기 서비스를 출시해 무제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본 항공서비스는 공항 탑승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가격도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의 최대50%, 전세기 좌성의 최대 95%까지 절감할 수 있다. 해당 스타트업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저가형 상품은 줄어들고 고가형 상품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시장 전망과 비용
- 전망 : 귀빈만 이용하던 전용기와 비즈니스 클래스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며, 비행기를 개조해 100석 규모의 비즈니스·퍼스트 좌석만 보유한 항공기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비용 : 현재 뉴델리 - 뭄바이 - 벵갈루 무제한 이용 월회비 747 달러 (약 86만 원)

• 운영 방법
- 예약 방법 : 앱(App) 예약 진행, 공항 보안 검사 생략으로 출발 30분 전에 도착가능
- 출입국장 : 일반항공편과 다른 출입국장 이용, 회원들을 돕기위한 전담 서비스팀 운영
- 서비스 제공 : 공항 픽업(Pick-up) 서비스, 전용 라운지 등 호화 서비스 제공

(출처 : Travel Daily Media, 2021.6.14.)

UAE

관광 개발 활성화 추진

아부다비 정부는 관광 활성화와 관광 개발을 위해 '관광 365(Tourusm 365)'를 조성했다. '관광 365'는 아부다비개발지주회사(ADQ)의 자회사 아부다비 국립 전시 회사와 54억 5,000만 디르함(약 1조 7004억 원) 규모의 합병을 논의 중이다.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60억 디르함(약 2조 원)을 투자해 경제의 문화와 창의 부문을 관리해 본분의 역할을 넓힐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The national news, 2021.6.22.)

캐나다

백신접종 완료자 여행 후 자가격리 면제

캐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 후에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했다. 자가격리 면제는 백신접종 완료 뒤 14일 후부터 적용된다. 캐나다 국민은 캐나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4가지 백신[5]을 접종해야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받는다. 단, 자가격리 면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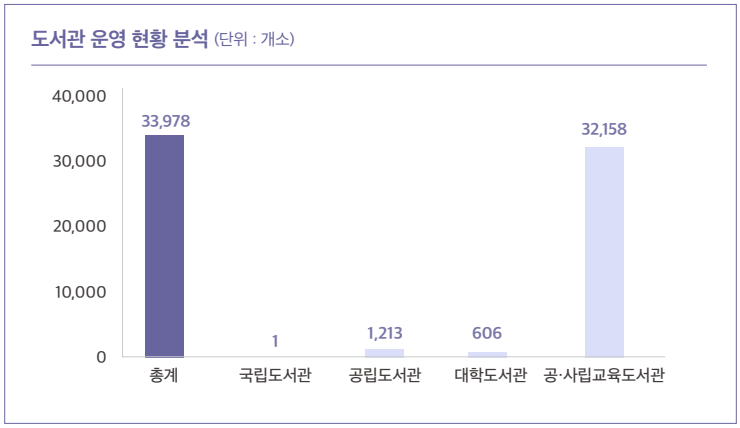
- **항공 여행** : 5세 이상 모든 입국 희망자는 PCR 음성 결과지 제출,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를 받은 후 8일간 격리, 백신 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와 격리에서 제외
- **육상 여행** : 전 연령 입국 희망자에 한해 PCR 음성 결과지 제출
- **외국인 유학생 등 특정 백신 접종 완료 외국인 포함** : 입국 시 PCR 검사 후 자택으로 귀가 가능, 미백신접종 외국인은 총 14일 동안 PCR 음성결과 나올 때까지 최대 호텔 3일 격리, 음성 결과 확인 후에도 남은 일정 동안 자가격리 준칙
- **벌금** : 격리 의무를 어길 시 최대 75만 캐나다달러(약 7억 원)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출처 : The globe and mail, 2021.6.21./2021.7.5.)

5. 문화체육관광통계

터키

터키 내 도서관 시설 총 33,978개소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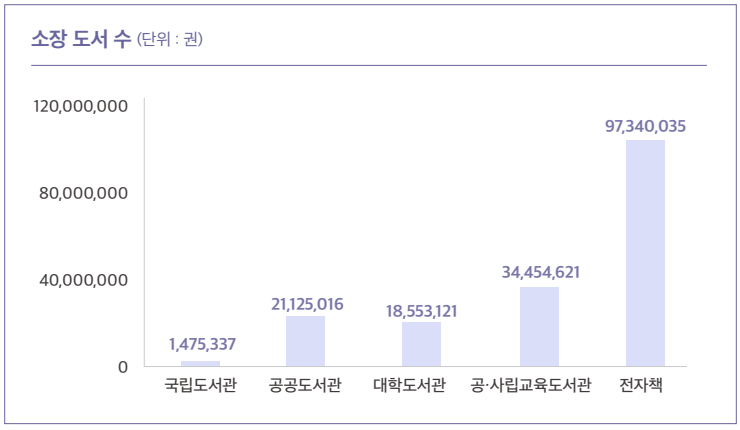


(출처 : AA 통신, 2021.6.22.)

터키 내 도서관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총 33,978개소로 집계됐다. 총 도서관 개소 중 공립도서관은 1,213개소로 2019년 대비 2.6% 증가했다. 대학도서관은 606개소(2019년 대비 ▼0.7%), 국립도서관은 1개소로 집계되었다. 공·사립교육도서관은 32,158개소(2019년 대비 ▲0.5%)로 다른 형태의 도서관보다 가장 많은 개소가 집계되었다.

(출처 : AA 통신, 2021.6.22.)

도서관 내 소장 도서 수 전년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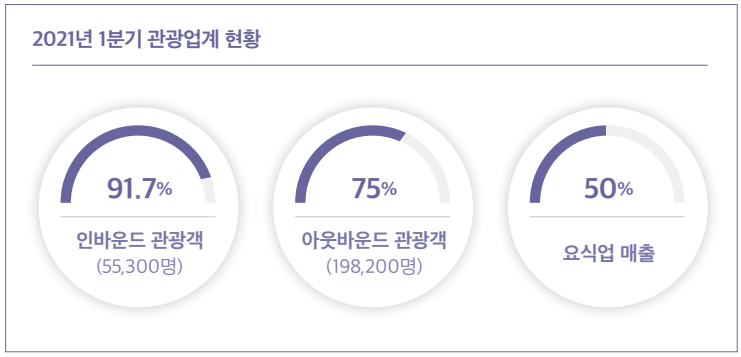
(출처 : AA 통신, 2021.6.22.)

전자책이 약 9,734만 권으로 2020년 대비 1% 감소했고, 그 외에 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2020년 대비 증가했다. 국립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약 147만 권(▲5.1%), 공공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약 2,113만 권(▲1.8%), 대학도서관은 약 1,855만 권(▲3.4%) 등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 AA 통계, 2021.6.22.)

아르헨티나

1분기 외래 관광객 전년 대비 91.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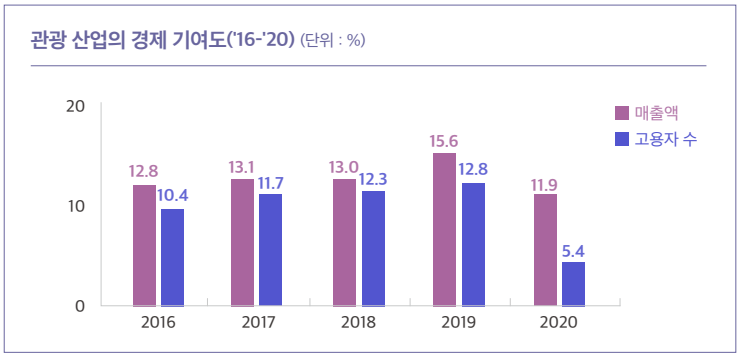
(출처 : 아르헨티나 통계청, 2021.7.13.)

2021년 1분기 아르헨티나 관광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외래 관광객은 55,300명으로 2020년 대비 91.7% 감소했다. 또한 국외로 출국한 아르헨티나인은 198,200명으로 2020년 대비 75% 감소했다. 요식업 매출은 2020년 대비 50%이하로 줄어들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관광을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출처 : 아르헨티나 통계청, 2021.7.13.)

필리핀

필리핀 관광산업의 경제기여도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감소



(출처 : Business World, 2021.6.17.)

필리핀의 관광산업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관광산업 매출액은 GDP의 11.9%를 기여했고 2019년 대비 31.1% 감소했다. 필리핀의 관광산업은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0년에 30% 이상 감소했다. 고용창출도 2020년 5.4%로 2019년 대비 약 58% 하락했다. 2016년부터 고용현황 역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0년 50% 이상 감소했다. 필리핀의 관광산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점으로 매출액과 고용창출에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II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1. 주스페인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며
2. 코로나19 이후 한·중·일 문화정책 비교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문화관계에서의 유럽연합(EU) 협력 국가 간의 문화·창의부문(CCS) 대응 정책 분석

주스페인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며

글 **오지훈** 주스페인한국문화원장

지난 2021년 6월 3일,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이하 한국문화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였다. 2011년 6월 무더운 어느 날 마드리드에 문을 연 한국문화원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명실상부 스페인 내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기고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문화원의 성과와 향후 10년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올해 50주년을 맞은 해외문화홍보원의 발전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문화원은 10년간 양(quantity)과 질(quality)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2011년 개원 당시 5만 명 수준이었던 연간 문화원 행사 참여자 수가 현재는 35만 명 수준으로 7배나 급성장하였고, 지난 10년간 문화원 행사에 참여한 전체 인원을 단순 합산하면 약 250만 명으로, 이는 스페인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최근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를 보면, 한국문화원은 4.3만 명으로 스페인에 있는 해외 문화원들 중 영국 6.4만명, 아랍 5.2만 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SNS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그동안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던 국가들의 문화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의 문화행사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행사와 사업들을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안전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2020년 이베로아메리카 권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K-Pop 온라인 콘서트를 기획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스페인과 중남미 한류 팬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K-팝을 통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스페인 내 영화 소비 패턴이 극장 외에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제13회 스페인 한국영화제'를 현지 최대 영화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해, 스페인 영화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판로를 열었다.

2021년 3월에는 스페인의 부활절 방학 기간에 맞춰 집에 안전하게 가족들과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아동극, 동화구연, 한식특강 등을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한국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5월 17일에는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최근 세계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혜상의 리사이틀 공연을 2,200여 석에 달하는 국립음악당에서 성대하게 개최하는 등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7월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 시 최대의 문화축제인 '베라노스 데 라 비야(Veranos de la Villa)'축제에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K-Pop 경연대회, 나윤선 재즈콘서트 등을 선보임으로써 다양한 한국문화를 스페인 국민들에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한국문화원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스페인에서 한국문화를 더욱 잘 알리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따뜻한 문화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기지화"를 새로운 아젠다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년간은 한국문화원이 한국문화를 스페인에 알리는 거점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이것을 기반으로 문화경제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전략기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국문화원의 사업을 대형사업 중심으로 브랜드화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이미 한국영화제, 코리아클래식음악제, 코리아사운드페스티벌 등 다양한 장르의 사업이 브랜드화되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스페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대표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올해 한국문화원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마드리드 시의 '베라노스 데 라 비야(Veranos de la Villa)'축제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국립음악당, 카날극장 등 스페인 내 주요 공연장과의 협력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행사의 수요자인 스페인 국민의 입장에서 연령별, 관심도별로 사업을 기획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화 상품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셀링(selling) 포인트 아이템을 발굴하고 문화행사 등과 연계함으로서 문화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코트라 무역관,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스페인 내 문화관련 시장 분석 등 조사(research)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도 확대하여, 한국문화의 따뜻하고 섬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얼마 전 유엔국제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한바 있듯이, 높아진 국격에 맞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로 한국문화의 온기를 스페인 전체에 확산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300여건 이상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스페인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페인 내에서 한국문화원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문화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수행, 한국문화상품의 수출 지원 등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문화원으로서 한국문화 홍보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한·중·일 문화정책 비교

본 내용은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제 The Covid-19 crisis and 'critical juncture' in cultural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of cultural policy responses i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발간일 2021.6.25.

발간처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링크 https://doi.org/10.1080/10286632.2021.1938561

요약

한중일 3국의 문화정책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문화정책의 기조를 정당화하고 촉진함으로써 '정책 가속화'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본은 팬데믹 이후에 예술가들이 일본의 불간섭주의 문화정책에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책개혁을 요구하는 등 '정책운동'이 촉발됐다. 중국의 문화정책은 팬데믹으로 인한 당국의 위기 상황을 이념적 용어로 전환해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직은 가시적인 변화가 없지만, 팬데믹의 영향은 이후 3국의 향후 문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다.

주요내용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문화예술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문화정책의 적극적인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책 입안자들이 문화를 산업화한 후에 경제적 구원자 또는 회복력의 상징으로 재편된 것과는 달리, 코로나19는 예술과 문화산업을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만들었다. 본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의 문화정책이 팬데믹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했다. 특히, 이번 위기가 문화정책에 중요한 분기점을 가져오는지, 즉 기존 정책과 구조가 변화의 도전을 받고, 정책개발의 가능성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하자, 수많은 문화행사와 유관기관들이 타격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달 20일에 즉시 한국예술복지재단(KAWF)을 통해 예술가에게 대출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공연장 소독제 물품 지원과 일부 금전적 피해 보상 등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즉각적인 재정지원을 했다. 지역 문화유관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는 작았으나, 문화 분야에서는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서울문화재단은 서울 내 예술단체에 재정지원과 예술가와 독립문화계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초에 3,469억 원의 추가예산을 지원받아 문화 기관들이 기존 재정지원 계획을 확대하고 일부 새로운 재정지원을 도입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지원 대책으로는 예술인 부담금, 공연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공공미술 사업 위탁 일자리 창출, 온라인 예술 제작 일자리 창출 등이 있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 인디영화 제작, 상영, 배급, 홍보 등의 지원 영역을 확대해 긴급 지원금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갔다. 이와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위원회, KAWF 등 문화유관기관들은 유네스코의 #ResiliArt 캠페인과 연계해 '코로나19 예술 포럼'을 조직했다. 포럼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문화예술 분야별 어려움, 예술인 복지와 사회 안전의 중요성, 예술인들의 생계지원 필요성 등 세계적인 공통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뤘다.

한국의 팬데믹 위기에 대한 대응은 2010년대 문화정책에 기초했다. 예술가의 노동 재생산 관련 지원 정책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긴급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문화정책이 검증되는 '시험대'였고, 정책 개발의 '가속장치'가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한국의 기존 문화제도를 강화하고 예술인과 문화 창작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문화예술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예술가들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향후 문화정책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

일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양한 예술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정책 논의의 계기가 됐다. 이는 예술분야에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와 국가 불간섭주의가 특징인 일본 문화정책을 잠재적으로 변화시켰다. 현재 일본의 제도적 문제는 중앙조직의 부재와 문화 분야의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안 되어있다. 일본 문화청(ACA)는 문화 분야의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중앙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산과 역할 범위가 제한적이다. 상업·대중문화에서 일본 문화청은 창의 산업 정책과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청(METI)의 정책에 가려져 있다.

코로나19는 일본 문화예술 분야를 심하게 강타했다. 공연예술의 매출은 79.3% 줄었고,

경제적 손실은 4,989만 달러(약 571억 원)에 달했다. 일본 예술가들은 2020년 2월 초부터 문화시설 폐쇄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문화청에서는 긴급 지원으로 방역과 세금공제에 대한 최소 지원 외에는 없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이 같은 해 6월에 확정된 이후에 정책 부양책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재정 지원금은 6억 6,000만 달러(약 7,547억 원)에 달했으며, 프리랜서, 중소 예술단체와 문화 시설 등을 지원했다.

일본 예술단체는 같은 해 2월부터 일본 문화청의 정책 부양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Save-Our-Save'와 '#We-Need-Culture'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문화정책 논의를 주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본 문화정책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일본 문화청이 문화 분야를 지원하는 중앙 기관이 됐다. 일본 문화청은 처음으로 예술단체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금을 제공했다. 두 번째, 정책 개편 과정에 일본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이다. 각 분야의 예술가들은 조직을 구성해 일본 정부와 협상하기 위한 정책의 비전과 목적, 방향을 설정하고, 회복 재단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인 개혁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에서 왜 문화가 중요하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정책의 발전과 일본 문화청의 권한 확대는 팬데믹 위기가 지나간 직후 증발할 지도 모른다.

중국

코로나19 팬데믹이 새로운 문화정책 논의를 촉발한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당국이 문화 선전과 이념적 역할을 촉진하고 문화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 전략적인 문화정책 체제를 강화했다. 국가 후원 문화기관은 가장 강력한 단체로서 중국 예술 기금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 기금과 같은 국가 기금 제도와 경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프리랜서 예술가들은 공식 고등 문화 분야와 주류 문화산업 사이에서 소외되고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 팬데믹 시기에 이러한 위계질서는 더욱 강화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시태를 '인민전쟁', '총력전', '전투'로 규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전쟁 '정책에 기반을 둔 중국의 문화정책은 세 가지 대응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전염병 통제, 인민동원, 경기부양이다. 국가라디오티비청(NRTA)는 팬데믹 확산 예방과 통제를 위한 선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팬데믹 관련 뉴스를 황금 시간대로 편성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팬데믹 근절을 위한 전국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과 세금 대책 도입 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지방정부가 문화산업과 문화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부양과 구호정책을 내놓았다. 문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부양책과 구제책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중앙정부는 선전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 문화예술연맹(CFLAC)는 전투의 핵심 '전투원'이 되기 위해 문화 인력을 동원했다. 회원단체들은 '문학전쟁', '음악전쟁', '미술전쟁' 등 다양한 '예술전쟁'을 추진해 지방정부와 선전부와 공동으로 팬데믹 퇴치 정신을 반영한 예술작품을 홍보하고 제작해 영웅을 미화하고 민족적 결속을 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 정부의 문화 통치 능력을 약화시키기보다 문화기관들과 함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동원하고, 조정하며 규제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

정책제언

한중일 3국의 문화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첫해 동안 3국의 정책의 경향과 향후 방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한국의 코로나19는 기존의 문화정책을 정당화하고 확장해 정책 가속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는 '정책운동'을 촉발시켰다. 일본 예술가들이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일본 문화청(ACA)의 예산과 영향력도 전례없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긴급 대책 자체는 일본 정부의 비간섭주의적 태도와 예술인들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안정성을 완화시켜주지 못했다. 중국은 기존의 문화정책 이념과 상의하달식 방식의 중국 정부의 힘을 공고히 했다. 팬데믹이 중국의 정치입안자, 문화기업과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문화제도 개선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당청정에서 변수 요인을 확고히 대처했다. 향후 잠재적인 전염병과 환경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관리자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문화관계에서의 유럽연합(EU) 협력 국가 간의 문화·창의부분(CCS) 대응 정책 분석

본 내용은 **유럽연합(EU)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제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the EU's Partner Countries, Policy Respons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발간일 2021.2.

발행 **유럽연합**(EU)

링크 https://ifacca.org/news/2021/02/10/assessment-impact-covid19-cultural-and-creative-se/

요약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문화와 국제관계 부문도 팬데믹 영향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본 보고서에는 국가 별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책 대응에 대한 분석과 협력국가(이웃국가, 서부 발칸반도, 전략적 협력국가)의 문화·창의부문(CCS), 국제관계 유제에 대한 의지 등의 내용을 실었다.

주요내용

문화·창의부문(CCS)은 경제부분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대표된다. 하지만 문화 분야의 구조적 취약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EU) 협력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문화 부문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팬데믹이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가 별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했고, 협력국가들은 어떤 정책적 대안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EU연합국은 나라별 선례를 들어 팬데믹으로 인해 단절된 국제문화교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문화·창의 부분(CCS) 영향

① 관광

유네스코(UNESCO)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관광이 국가 경제의 최대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2019년, 서비스 기반 수출 산업은 관광으로 인해 29%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1분기 국제여행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56%, 5월 최대 98%까지 감소됐다. 세계관광기구(UNTO)에 따르면, 이는 관광객 3억 명 감소와 3,200억 달러(약 366조 800억 원)의 손실 규모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요 문화유적지, 특히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역사박물관, 고대 유적지에서 관련 종사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레크레이션과 공연예술 분야, 문화 생산과 유통의 전체 생태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팬데믹으로 모르코, 요르단, 레비논은 국가 경제의 7%, 이집트는 12%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유네스코는 2020년 아랍국가들의 관광여행 부분 손익에 대해 1,260억 달러(약 144조 810억 원)의 손실과 4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② 공연예술

공연예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중 하나이다. 설문조사 기관이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은 국제관계(IR)의 밀접정도와 관객과의 관계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공연 행사는 일정연기 38%, 취소 40%, 대폭 축소 22%로 나타났다. 알바니아 국립극장은 폐관하거나, 공연 중단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국립 사라예보 극장과 북마케도니아 국립극장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도 홍콩과 마카오의 예술제, 공연예술 엑스포 등이 연기됐다.

③ 박물관

유네스코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5월까지 전 세계 박물관의 90%가 강제 폐쇄조치를 취했다고 추정했다. 이집트와 중남미의 대표 박물관들은 잠정 폐관을 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재개관했으나, 코로나19 전염 악화로 다시 폐관했다. 한국은 국립현대미술관(MMCA) 등 주요 박물관이 5월에 대표 박물관들은 국립고궁박물관도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제박물관협회(ICOM)은 적어도 10개 박물관 중 1개는 재개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많은 박물관들이 정상 영업시간에 재개하고 방역조치를 통해 관람객을 수용하고 있지만, 고용 악화로 계약직의 6%가 갱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COM은 박물관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는 공공·민간 재정 지원 위축과 문화 수준 저하, 연구와 문화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④ 도서출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도서출판 부문은 2020년 매출이 7.6%로 최대 70억 달러(약 8조 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도서출판 분야의 상호 연계성은 출판사, 작가, 서점에서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점의 폐업과 문학축제, 무역박람회 취소로 출판사들은 신간 출판을 연기하게 되었고, 이는 곧 작가와 출판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싱가포르 책 판매량은 65%, 아르헨티나는 60% 감소했고, 캐나다도 4월 도서 판매량이 65%

감소했다. 또한 도서전 등 행사가 취소되어 어랍권 출판업계가 큰 피해를 보았고, 바레인, 중국, 아부다비 국제도서전 등 15개국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됐다.

⑤ 음악

영국은 음악 부문의 손실액이 5,000만 파운드(약 795억 원) 달한다. 반면, 미국은 100억 달러(약 11조 원) 수익이 증가했다. 이는 음악업계 매출의 약 50%가 음원에서 창출되어 일부 손실이 완화됐으나, 나머지 50% 매출에서는 공연행사의 취소,축소, 음반점포 폐쇄 등이 발생했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는 전 세계의 수십 개 부문별 구호 기금과 협력해 코로나19 음악 구제 프로그램(the Spotify COVID-19)를 설립하고, 2020년 1분기 신규 가입 600만 건의 성과를 냈다.

⑥ 미술

민간활동, 국제 박람회와 전시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 또는 연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예술 전 분야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망했다. 중남미, 미국. 동남아, 중국 4개국의 대표적인 국제미술행사가 취소됐다.

⑦ 영화산업

공연예술과 함께 영화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영화 제작과 배급의 전 과정이 멈춤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아랍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전부터 영화산업이 취약한 구조였으나, 팬데믹 이후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해외와 유럽과 공동제작에 의존하는 지역 영화산업은 국경 폐쇄와 사회적 거리유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영화관은 오랫동안 문을 닫았으며, 주요 국제영화제는 연기되거나 소규모로 개최되었다.

정책적 대응

협력국가들은 문화·창의부문(CCS)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부와 시민 활동가들의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대부분 각국의 대응책은 재정상태, 당국과 문화 부문 간의 상이한 관계, 국가별 정책적 선택에 따라 상이했다.

동부 근교 국가	신흥 및 개발도상국가들의 재정 부족난 상황이며, 정부 통제 하에 문화기관의 재정 지원 운영
서부 발칸 지역	문화 분야에 다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특징,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문화·창의부문에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
남부 근교 국가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문화·창의분야에 대한 공공대응책 부재, 반면, 민간부분에서 지원책 마련과 이행
전략적 협력국가	정부, 비정부, 시민 사회의 반응이 가장 활발하며, 북미지역의 협력국가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문화 분야의 관심도 상이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비상관리 체계에 따라 엄격하고 효과적인 팬데믹 대응책 채택

국제문화관계

- **독일 연방 외무부와 괴테 연구소 - 문화와 교육 기관을 위한 '2020 국제 구호기금'**: 구호 기금은 독일의 협력국 내 기관을 지원하며 국제문화협력의 지속을 목적으로한다. 지원 분야는 기반시설 유지, 재개발 프로젝트, 새로운 디지털 형식 개발, 디지털 교육과 자격증 등이 있다. 국제 구호기금은 괴테 연구소와 연방 외무부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독일의 유네스코 위원회 등 문화 단체와 민간 재단의 협력하고 있다.

- **모로코의 프랑스 연구소 - 모로코 예술과 문화 현장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사업의 이례적 요구** : 2020년 5월, 프랑스 대사관의 협력문화활동과는 모로코 예술문화 현장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요구는 프랑스 대사관의 직접적인 경제 지원과 모로코 소재 프랑스 연구소의 기술 지원을 통해 문화 협회와 예술 업계 운영자들에게 전달된다. 프랑스의 본 지원은 성별의 다양성, 사회적 화합을 위해 문화의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제한된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 향유의 발전을 촉진하고 육성하고자 한다.

- **우크라이나의 'House of Europe'- 팬데믹 치료 문화** : House of Europe은 우크라이나에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교류를 위해 개발한 새로운 유럽연합(EU)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문화와 창의 분야를 지원한다.

해커톤 "Hack the Culture"	예술, 창의 산업, IT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1,168명이 참여해 48시간 동안 문화 위기 방지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이디어톤(Idea+Hackerthon)
기반시설 보조금	극장, 화랑, 창의적 기관, 기타 기술 장비와 임대료가 필요한 문화기관을 위한 지원
디지털 협력 보조금	새로운 디지털에 효율적, 혁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개 기관 지원
문화·창의산업 분야 전문가 지원	팬데믹으로 소득 손실이 있는 문화 종사자들에게 비상구제금 지원, 온라인 강좌 교육비 보조금 지급

- **세르비아 문화정보부 - 예술가의 유동성**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국제문화교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문화정부 국제관계유럽통합과가 2020년 예술인들의 가상 교류 체계 기반 조성을 촉구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문화협력 증진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문화예술 해외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적 제언

EU 협력국가들은 코로나19로 교류가 단절된 국제문화관계를 정부 대 정부 간의 공적인 방식을 통해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부분 비정부 주체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문화·창의부문(CCS)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각 국가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교류하고 문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III
이달의 담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를 위한 국제문화교류의 역할

이달의 담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를 위한 국제문화교류의 역할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1992년 8월, 두 나라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대한 합의였다. 6개 항의 공동성명은 수교 선언, 수교의 기본 원칙, 한국과 중국의 국가적 정책에 대한 상호 승인(한반도 통일과 '하나의 중국'), 아시아 역내에서의 기대와 역할, 수교에 따른 실무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공동성명은 짧고 건조한 언어들로 이뤄졌지만, 그에 대한 영향력은 컸다. 국가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채 '적성 집단'으로 여겨지면서 오랫동안 '중공'으로 불려오던 상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47년 동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던 상대는 하루아침에 '좋은 이웃'(선린)이 됐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중국이라고 생각해 왔던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됐다. 중국의 정통성은 다시 '대륙'으로 넘어왔다.

한국과 중국은 경계를 맞대고 살아왔다. 역사를 기록하기 전부터 두 나라는 이웃이었다. 땅의 형세가 서로를 맞대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리적 인접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지리-정치가 만들어낸 지정학적 상황은 물론 지리-문화 조합의 지리문화학적 맥락, 지리-경제 조합의 지리경제학적 흐름이 두 나라의 삶을 구성해 왔다. 문명의 발생이 꽤 빨랐던 중국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역사가 시작된 뒤, 두 나라는 잠시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다. 크게 보면 한반도의 문명은 중국의 대륙 문명으로부터 전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고대 문명이 중국 대륙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다.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왕조는 주거니 받거니하며 대륙과 상호작용했다. 신라와 당(唐)은 빈번한 교류 끝에 연합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했다.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중국에서 넘어온 사상, 제도,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제'라든가 '문화'라는 말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중수교는 지리-정치, 지리-문화, 지리-경제의 완벽한 복원이었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는 2020년 2,434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28년 동안 무려 38배가 늘어났다. 2020년만 보면 중국과의 교역은 미국과 일본을 합한 규모보다 컸다. 정확한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화 분야 역시 긴밀한 복원이 이뤄졌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한류는 영화, TV 드라마, K-Pop을 내세워 중국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물론 한·중 수교 30년 동안 두 나라 관계는 부침을 겪었다. 보통 30년은 한 '세대'가 된다고들 한다. 세대의 변화는 계승과 단절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윗세대를 부정해야만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윗세대 없는 아랫세대는 근본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야 할 한·중 관계 역시 이와 같은 세대론의 구조 안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30년, 계승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선린 우호 협력 관계'(睦隣友好合作關係)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1998년 '협력 동반자 관계'(合作伙伴關係), 2000년 '전면적 협력 관계'(全面合作關係),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로 점차 격을 높여 왔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양국 관계의 수사적 표현이 화려해질수록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1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허니문의 시간을 보냈다. 반세기 가까운 단절로 인해 사뭇 달라진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었다.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고 지식과 문화가 서로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1997년 중국중앙방송(CCTV)에서 방송된 한국 TV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중국인에게 한국 대중문화를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한류는 〈별은 내 가슴에〉, 〈겨울연가〉, 〈대장금〉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1998년 중국에서 H.O.T의 음반이 발매되자 K-Pop에 대한 중국인의 열정도 더욱 뜨거워졌다.

한·중 간의 어색한 관계는 2000년대에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2020년에 찾아온 '동북공정(東北工程)'이었다. 중국이 '등베이'지역에 존재했던 옛 우리 왕조들을 고구려나 발해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편입하려는 프로젝트다. 이로 인해 한·중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한 번의 큰 갈등을 엮었다. 두 번째는 2016년 한·중 양국 간의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에서 내린 한한령(限韓令)이었다. 중국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자국 내 진입을 불허한 행정 명령이다. 중국은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1990년대 중반에 한일령(限日令)을 발동한 적이 있었다. 이는 군사·외교적인 문제를 경제·문화적인 대응으로 풀어보겠다는 태도였다.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한국영화와 TV 드라마의 수입이 제한됐다. K-Pop 공연도 기약 없이 취소되거나 유보됐다.

문제는 한한령 이후 양국 문화갈등이 더욱 빈번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한·중관계는 김치 원조 논쟁(2020), 중국 드라마 〈겨우 서른〉(三十而已)의 여배우 이름 '강소영' 해프닝(2021),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중국풍 소재 사용에 따른 제작 취소(2021)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반중 정서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에서의 반한정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2019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국가 가운데 2.0%로 13위를 차지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실시한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해도 항상 10위권 안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상황이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퓨 리서치 센터(미국 소재)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다소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는 일본, 스웨덴, 호주에 이어 한국이 4번째로 기록됐다.

따라서 이렇게 빈발하는 양국 간 문화갈등과 반감의 정서가 생산되고 유포되는 구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때로는 공적 기관(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갈등 유발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은 양국 정부가 두 나라 사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지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속되고 있는 문화갈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양국 사이 문화교류는 침체를 거듭해 왔다. 물론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교류란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새삼 '문화교류의 해'라는 명명을 내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다소 부자연스러워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사 이래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화교류가 중단된 적은 사회주의 중국 수립 이후부터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까지 지난 반세기 정도에 불과했다. 한·중 수교가 두 나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문화교류를 회복하는 변곡점이었다면, '한·중 문화교류의 해'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온 두 나라 사이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나라의 어색한 상황을 타개해 줄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잠시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문화교류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있는 듯한 상황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제한했던 한류는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선전하고 있다. 한한령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한령 직전인 2015년 기준으로 우리의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14억 5,000만 달러였는데, 2018년 기준으로는 24억 4,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5년 기준 1억 7,000만 달러에 불과했고, 2018년 기준으로도 2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시장은 합작영화와 드라마를 다시 제작·기획하고 K-Pop 콘서트를 여는 등 여전히 한국 문화콘텐츠를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중국 시장에 상존하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류의 조용한 진출이 중요하다. 한한령 이후 출판콘텐츠나 방송콘텐츠처럼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집약형 콘텐츠의 수출액은 감소했는데, 이런 점에 미뤄보더라도 떠들썩한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한한령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귀의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무엇보다 한한령 이전에 진행해 왔던 다양한 문화 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광전총국(廣電總局: 현재 영화 부문은'국가영화국'으로 재편)의 주최로 해마다 공동으로 열어오던 '한·중영화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한 문화 분야의 전문가와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인식의 전환'과 '상호 깊은 이해'를 주제로 한 포럼과 세미나도 민간에서 빈발하는 문화갈등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극복하고 두 나라의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본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상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 8월,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을 계기로 향후 건설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논의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 후대세대에 물려줄 미래 30년은 지난 30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IV

What's On KCC abroad

[재외한국문화원 8월 활동계획]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 한국문화 소개 온라인 뉴스레터『Corea Today』8월호 발간 [8.2. | 문화원 누리집]

- 한국문화에 관한 기사를 매달 작성해 7,000여 명의 문화원 뉴스레터 회원에게 배포
- 8월 뉴스레터에는 1) 광복절, 2) 밀키트 행사 리뷰, 3) 한국의 나이와 생일, 4) 낙산공원, 5) 이화벽화마을 등 일러스트와 함께 재개

○ 온라인 공연 [8.6.~8.13. | 문화원 유튜브]

- 2021년 온라인 공연 영상 공모 선정 작품 15개를 선별해 온라인 공연 진행
- 8.6. <당시의 더 없는 행복을 바랍니다.>
- 8.13. <가죽가방의 소녀>

○ 한국 단편 영화시리즈 <K-Lab> 제작 완료 [8.12. | 문화원 유튜브]

- 이탈리아 국립영화센터와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단편영화 시리즈 제작
- 총 10편 제작(단편영화 5편, 설명판 5편)

○ <내가 사랑하는 한국>영상 시리즈: #7.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 [8.12. | 문화원 유튜브]

- 한국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인터뷰 또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제작
- <내가 사랑하는 한국> 시리즈 10편 제작

○ SNS 한국문화소개 '너희들 이거 알고 있었니?' 카드뉴스 제작과 개시 [8.11. | 문화원 SNS]

-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휴양지 5가지를 선정해 해당 휴양지 소개, 카드뉴스 제작

○ 유튜브 영상 <당신이 바라는 한국> : #11. 한국사람들이 여름에 즐기는 야외활동 [8.16.~8.20. | 문화원 유튜브]

- 한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 2명이 한국인들의 여름에 즐기는 활동과 휴양지 소개
- '갯벌체험', '수목원' 등 장소에 대한 콘텐츠 제작과 개시

○ 세종학당 한국어강좌 수강생 등록 [8.16.~8.31. | 문화원 온·오프라인]

- 한국어 강좌, 세종1~세종7, 토픽2 등 총 38개반의 온·오프라인 강좌 개설

○ 세종학당 한국어강좌 수강생 등록 [8월 중]

- 11월 중, 로마 내 미술전시관에서 한지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 개최와 계획 수립

○ **<루치 델라 리발타> 문화축제 내 한국영화상영회 개최 및 한식 소개 영상 상영** [8.14.~8.29. | 나르니시]

- 이탈리아 나르니시에서 진행되는 <루치 델라 리발타> 문화축제에 한국영화 상영회 진행
- 문화축제 기간 동안 한식 소개 영상 상영

○ **한국현대무용 오프라인 공연 계획 수립** [8월 중]

- 한국 현대무용단의 <속도> 공연 계획 수립

독일

○ **한식을 위한 시간 : 담양 떡갈비 편** [8.5. | 유튜브]

- 대한민국 각 지역의 특별한 음식을 주제로 해당 음식의 역사 및 레시피 소개
- 본편 주제 : 담양 떡갈비

○ **온라인 한국문학클럽** [8.4. | 화상회의]

- 매월 한국문학 1편을 선정해 해당 작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 개최
- 8월 주제 : 김려형 작가의 <완득이>

○ **우리 함께 연주회** [8.5. | 유튜브]

- 코로나19 이후, 독일 내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주회 개최와 영상 개시

○ **SNS로 보는 한국문화 : 광복절회** [8.9. | 사회관계망]

- 8월 광복절을 맞이 관련 '문학' 작품 소개
- 본편 주제 : 광복절과 유동주 시인

○ **2021년도 베를린 다문화축제 한국팀 참가 지원** [8.15. | 베를린 시내]

- 전 세계 180여 팀이 참가해 각자의 문화를 뽐내는 축제로 한국팀 참가 지원
- 문화별 포퍼먼스를 구성해 베를린 주요 시내를 행진하는 퍼레이드 형식

○ **지금, 가야금! : 여름편** [8월 3주 중 | 유튜브]

- 한국의 전통악기 가야금의 영상 시리즈, 5분 가량 송출
- 본편 주제 : 브레이브걸스 <롤린>

○ 독일어로 읽어주는 한국문학 [8.17. | 유튜브]

- 한국문학 1편을 생동감 있게 읽어주는 영상
- 본편 주제 : 황석영 작가의 <낯익은 인생>

○ 유튜브 한국문화 : 캠핑편 [8.23. | 유튜브]

- 한국에서 활동하는 독일배우가 소개하는 한국문화와 현재 한국의 트렌드 영상 시리즈
- 본편 주제 : 여름휴가와 캠핑

○ 2021년도 한국문화가 있는 날 : 8월 공연 [8.25.예정 | 유튜브·문화원 공연장]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한국을 주제로 문화원에서 개최되는 공연
- 7월 공연팀 공모 후, 8월에 첫 공연 예정

○ 오디오로 떠나는 한국여행 [8월 중 | 문화원 누리집]

- 한국에 대한 정보를 오디오 드라마로 구성, 전문 성우가 연기
- 8.28. <한국의 영웅 : 이순신 장준>
- 8월 마지막 주 청소년 도서 <Emmi in Korea>
- 8월 마지막 주, 한국어 편

○ 오디오로 떠나는 한국여행 [8월 중 | 문화원 누리집]

- 한국에 대한 정보를 오디오 드라마로 구성, 전문 성우가 연기

○ 유튜버 로타와 함께하는 K-학당 : K-Pop 발라드편 [8.30. | 유튜브]

- 한류 관련 독일 유튜버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
- 본편 내용 : 당신에게 추천하는 K-Pop 발라드

○ 훔볼트 포럼 큐레이터 고용 관련 사업계획서 접수·협의
[8월 마지막 주 | 온·오프라인]

- 큐레이터 선발과 업무 내용, 특별전, 힉술회, 교육프로그램 등 한국실 발전계획 전반 논의

○ 독일 실버인구 대상 한국문화 워크숍(2차) 개최
[8.31. |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구청 노인복지시설]

- 현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문화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 개최

영국

○ 한국영화의 밤 [8.5.~8.25. | 온라인, 베타독하우스]

- 8.5. 다큐멘터리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 온라인 상영
- 8.10. 다큐멘터리 <시 읽는 시간> 극장 상영
- 8.25. 그래픽 소설 <Umma's table> 온라인 토크

○ 온라인 여름문화 한삭강좌 [8.11. | 온라인]

- 한국의 여름문화 소개, 한국 여름철 음식인 닭백숙과 화채 레시피 시연

○ 한국스포츠인 토크콘서트 [8.12. | 문화원]

-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소현 여자축구선수와 한국계 영국인 레이싱 선수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마련해 스포츠 분야의 인지도 상승 기여

○ 하우스 콘서트 [8.26. | 문화원 유튜브]

- 영국 왕립음악원 한인 연주자 송지수(비올라) 트리오 공연을 문화원 온라인 중계

프랑스

○ 문화원 <한국 : 입체적 상상>전 [8.1~8.13. | 문화원]

-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UNESCO) 공동으로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2021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창의경제의 해' 계기로 전시 개최
- 영화 <기생충> 관련 콘텐츠와 다양한 한국문화 전시

○ <책거리 민화>특별전 [8월 중 | 문화원 제1전시실]

- 민화 책거리를 주제로 총 47점 전시 예정
- 낭트 한국문화축제 <한국의 봄>개최 계기 연계전시 개최

○ 재불청년작가협회(AJAC) 정기전 [8월 중 | 문화원 제2전시실]

- 19명의 회원 현대 작품(설치, 영상, 회화작품 등) 설치

○ SAC on screen [8.23.-8.31. | 문화원]

- 예술의전당 우수 공연을 4K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Sac on screen 프로그램 진행
- 발레작품 <호두까기인형>,<라바야데르> 공연 각 2회 예정
- 뮤지컬 <웃는남자>, 넌버벌 공연 각 2회 예정

○ **공포영화 상영회** [8.23.~8.27. | 문화원]

- 여름맞이 납량특집 공포 영화 상영
- 영화 <장화홍련>, <부산행>, <알포인트> 각 2회 상영

폴란드

○ **2021 온라인 K-POP 댄스 경연대회 'Dare to K: K-POP에 도전하라!'** [8.1.~8.30. | 온라인]

- K-Pop 애호가 대상 온라인 댄스 경연

(출처 : 한국문화원)

○ **문화원 온라인 태권도 강좌 '태권도와 함께 건강한 일상 보내기'** [8월 중 | 온라인]

- 현지 한인 사범과 일반 수련자와 함께 태권도 기본동작인 품새 등을 배워보는 콘텐츠 제작해 주재국민, 교육기관 등에 제공
- '태권도와 함께 건강하게 여름방학과 일상 보내기' 행사 개최 예정

○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8.1.~8.6. | 온라인]

- 한국어 강좌 정규반과 특별반 운영
- 총 70여 명 등록·수강(초급 5개 반, 특별반 1개 반)

○ **한국어 카드뉴스** [8.1.~8.31. | 온라인]

- 한국어 학습 온라인 콘텐츠 프로그램 진행

○ **국립중앙박물관 협업 특별전시 소개영상 시리즈 공개** [8.1.~8.31. | 온라인]

- 국립중앙박물관 소개 영상, 특별전시 영상콘텐츠 공개와 홍보

○ **뮤지컬 <마리퀴리> 상영회 연계 상설전시** [8.30. | 문화원]

- 뮤지컬 <마리퀴리> 상영회 관련 상설전시 개최

헝가리

○ <그 다음은(What is Next?) 2>시리즈 [8.2.~8.8. | 온라인]

- 이대성 작가의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화되고 있는 몽골 지역과 인도 서부 벵골 주 해변의 작은 섬 '고라마라'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 작품
- #4. <미래의 고고학>, <사라져가는 섬의 해변에서> 온라인 전시

○ Sac on Screen 한국공연 야외상영 [8.2.~8.31. | 쿨틱코르빈 야외상영관]

- 8.2. 현대무용공연 <춤이 말하다>
- 8.16. 클래식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 한국여름나기 특집 : 공포영화 패러디 영상 상영
[8.2.~8.31. | 문화원 사회관계망]

-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을 패러디해 문화원에 소개
- 8.3. <킹덤>
- 8.10. <전설의 고향>

○ 한국여름나기 특집 : 시대별 댄스 영상 공모 [8.9.~8.30. | 문화원 사회관계망]

- 8.3.~8.6. 시대별 안무 학습 영상물 공개, 총 4회(1일 1회 공개)
- 8.9. 학습 영상물 안무 따라 하기 공모
- 8.30. 사회관계망을 통해 참여 영상 합본 공개

○ KMR 한국영화 야외 상영회 [8.13.~8.27. | 쿨틱코르빈 야외상영관]

- 8.13 영화 <미나문방구>
- 8.27. 영화 <오케이! 마담>

○ 헝가리 문화유산축제 한국부스 참가 [8.20.~8.22. | 부다왕궁]

- 35년째 개최하는 헝가리 최대 민속축제 참가해 한국 전통문화 소개(부스 운영)
- 서울시 무형문화재, 한국미술협회 초대작가 초청 한글서예, 단청, 조각보, 지승공예 등 한국전통 문화예술 시연과 체험행사

○ 한국 문화강좌 마스터 클래스 [8.16.~8.30. | 문화원 한국문화체험관]

- 서울시 무형문화재, 한국미술협회 초대작가 초청 문화원 문화강좌 강사 보수교육, 수강생 대상 특별 강좌 개최
- 강좌 내용 : 한글서예, 단청, 조각보, 지승공예, 사군자

○ 세종학당 가을학기 개강 [8.30.~12.30. | 온·오프라인]

- 한국어 1~6 강좌 개설

스페인

○ 나윤선&Ulf Wakenius 재즈 콘서트 [8.3. | 꼰데두께문화센터]

-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과 스웨덴 출신의 기타리스트 울브 카니우스의 합동 공연

○ 구자하<THE HISTORY OF KOREAN WESTERN THEATRE> [8.12.~8.13. | 꼰데두께문화센터]

- 한국연극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연극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사실에 대한 다큐멘터리 공연

○ 이이남 <The Signal of Light> [8.12.~8.14]

- 미디어아트 이이남의 작품을 미디어 파사드와 접목해 동·서양 고전회화에 대한 시각 예술 소개

○ 한국동화 '이야기' 인형극 [8.14.~8.15. | 꼰데두께문화센터]

-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현대동화 <파란 파도>, 전래 동화 <요술 항아리> 두 작품을 인형, 가면, 인형 등 인형극으로 재구성

○ 정관스님의 '이 음식은 어디서 오는가?' [8.23~8.26.]

- 천진암 암주 정관스님을 초청해 스페인에서 한국의 사찰음식 소개

러시아

○ 온라인 한국 문화콘텐츠 소개 : 태권도 [8.6~8.27. | 문화원 유튜브]

- 러시아 내 태권도 수련생과 현지인들을 위한 태권도 품새 수련 영상을 러시아어로 번역 후 게시
- 8.6. 태권도 홍보 영상
- 8.13. 태극 1장
- 8.20. 태극 2장
- 8.27. 태극 3장

○ 문화원 상설 전시 인테리어 사업 [8.23.~8.31. | 문화원 3층 전시실]

- 국유화 사업에 따른 새건물 이전에 따라 문화원 3층 상설 전시실 구성과 인테리어 사업 진행

- 전시 판넬 제작(한국 지리, 한복, 한식, 한옥, 태권도 등), QR 코드 연동을 통한 한국문화 소개, 한국문화 소개 영상 제작과 상시 상영, 기타 한국 소개 소품 제작 및 배치 등

○ 2021 가을학기 한국어강좌 수강생 모집 [8.17.~8.30. | 문화원 누리집]

- 2021 가을학기 한국어강좌 수강생 모집, 총 1,850명 모집 예정 (초급반 25개 반 1,500명 / 중급반 7개 반 350명)
- 8.17.~8.19 초급반(세종한국어 1)
- 8.23.~8.25. 초급 및 중급반(세종한국어 2-8)
- 8.27.~8.30. 추가 모집

○ 하반기 정기영화 상영회 [8.17.~8.30. | 모스크바 모스키노 코스모스 상영관]

- 영화 <관상> 상영

○ 2021 문화원 홍보 동영상 제작 사업 [8월 말 | 문화원 누리집]

- 국유화 사업에 따른 새건물 이전에 따라 문화원 홍보 영상 제작과 현지인 대상 홍보

미주

워싱턴

○ K-Art 정기 전시 <제3의 것, 터쉬엄 퀴드(Tertium Quid)> [8.6.~8.31. | 문화원 전시실]

-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시각을 담은 작가들의 작품 전시 손혜원, 장재준, 정유리 작가 참여
- 총18여 점(조각, 설치, 회화)

○ 한국어 강좌(Korean Language & Culture Classes), 여름학기 운영 [상시운영 | 문화원 누리집]

- 여름학기 총 17개(초급반 9, 중급반 5, 고급반 1), 일주일 1회, 총 15번 수업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선정 작품 상영회 [8.11., 8.25. | 문화원 누리집]

- 8.11.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기가막힌 흥>
- 8.25. 99 아트 컴퍼니 <제(祭) II >

○ 시카고미술관 한국 소장품 소개 [8.31. | 온라인]

- 한국소장품 10점 소개하는 영상 제작과 배포

뉴욕

○ <2021 오픈 스테이지: 굿바이 460 파크, 함께 만드는 미래> 기획 공연 [8.1.~8.31. | 온라인]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계 공연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원 이전을 앞두고 현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문화원의 대표 기획 공연 프로그램
- #5. 이지혜 오케스트라 <Jazz Orchestra Plays Gugak>
- #6. Argus Quartet <Narratives of Seasons>

○ 뉴욕한국문화원 x 해외문화홍보원 <Enjoy K-arts> [8.1.~8.31. | 온라인]

- #7. <극단사다리> 홍보
- #8. <악단광칠> 홍보

○ <뉴욕아시안영화제-한국영화> 특별전 개최 [8.6.~8.22. | 링컨센터 월터리드극장, SVA 극장, 온라인]

- 필름 앳 링컨센터, 뉴욕아시안영화재단 공동주최, 영화진흥위원회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는 영화재로 한국,홍콩,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최신 화제 영화를 온·오프라인 개최
- 오프닝 영화 <모가디슈> 포함 <자산어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등 11편 상영

○ 집에서 즐기는 한국문화 [8.1.~8.31. | 문화원 누리집]

- 전통 한식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이며 현지인들에게 한국음식, 한국 고전영화 등 소개, 매주 에피소드 1편 상영
- #1. <K-Recipe Guide> 에피소드 1편 상영
- #2. <Creative Kimchi Creations> 에피소드 1편 상영
- #3. <Film Critic's Choice Series: Darcy Paquet> 고전영화 1편 상영

○ 팝파핑 코리안(PopPopping Korean) [8.1.~8.31. | 문화원 누리집]

- 실생활 회화 한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으며, 매주 1편씩 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소개
- 8.3. Episode 24. 히로미한테 줄 거예요
- 8.10. Episode 25. 김밥이랑 떡볶이 먹을래요
- 8.17. Episode 26. 테니스 칠러 갈래요
- 8.24. Episode 27.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미안해요
- 8.31. Episode 27.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미안해요.

○ 뉴욕한국문화원 x 링컨센터 <K-Pop Disco Fever> 공연 [8.15. | 오프라인]

- 링컨센터의 'Restart Stages'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링컨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K-Pop 스탠딩 댄스 공연 소개하며 K-pop음악과 춤 등 현지인이 즐길 수 있는 공연 소개

○ **<K-Pop Song & Dance Online Competition> 개최**
[8.15.~8.31. | 문화원 누리집]

- K-Pop을 사랑하고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대상 온라인 K-Pop 댄스 경연대회 개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류 확산에 기여

○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8월 프로그램** [8.19. | 구글 미트]

- 여름 특집으로 다양한 여름과일을 한국어로 배워보고 수박과 관련된 동화책을 한국어와 영어로 읽어보는 교육 프로그램

LA

○ **<LAUNCH LA -Reflection> 전시** [8.6.~8.29. | 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

- 비영리 예술단체 LAUNCH LA와 함께 지역작가를 대상으로 공모전 실시, 테럴 틸포드 (Terrell Tilford)와 박선욱 큐레이터가 선정한 그룹작가전 개최
- 재미 한국예술가 포함 커뮤니티작가의 예술작품 소개

○ **<2021 영어 판소리 시리즈 온라인 특별 공연** [8.11., 8.25. | 사회관계망]

- 8.11. #5. <수궁가>
- 8.25. #6. <적벽가>

○ **K-Pop 아카데미 보컬 &댄스**
[8.16.~8.20. | 미네소타 대학]

- 현지 내 한류 팬 대상으로 체계회된 K-Pop 보컬과 댄스 수업

(출처 : 한국문화원)

○ **K-Story 전래동화 시리즈 '빨간부채 파란부채'** [8.27. | 문화원 사회관계망]

- 한국의 전통 전래동화를 영어로 번역해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캐나다

○ 2021년 캐나다 한국영화 축제 [8.1.~8.31. | 문화원 누리집]

- 8.1.~8.6. 캐나다 한국영화 축제 토론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미나리> 등 온라인 상영
- 8.18.~8.31. 오타와 한국 영화제, <찬실이는 복도 많지>, <산나물 처녀>(2016, 김조희) 등 온라인 상영
- 8.25. 오타와 한국 영화제, '감독과의 대화 : 김초희 감독'

○ 한식 웹툰 <곰곰이의 한식 여행> 연재 [8.3., 8.17. | 온라인]

- 신규 한식 웹툰 시리즈 연재

○ 한국어 강좌 [8.3.~8.9. | 온라인]

- 초·중급 한국어 강좌

○ 1인 K-Pop 릴레이 댄스 3차 최종영상 개시 [8월 중 | 온라인]

- K-Pop 릴레이 댄스 1인 참여자들의 영상 편집해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 후 개시

○ <MEGA SEOUL 4DECADES> 사진전시 연계행사 [8월 중 | 문화원 사회관계망]

- 8.3. 서울의 역사 강연 4
- 8.12. 전임 주한 캐나다대사님이 들려 주는 서울이야기 1
- 8.19. 전임 주한 캐나다대사님이 들려 주는 서울이야기 2
- 8.19. SPAO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

○ 칼튼대학교미술관 연계<윤진미사진전> 작품상영·토크 2
[8.5. | 칼튼대학교 미술관, 문화원 사회관계망]

- 한국계 캐나다 미술가 윤진미 작가의 전시 공동주최, 작가와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예술가 토크 온라인 제공

○ 문화원 온라인 한식 강좌 [8.9. | 온라인]

- 현지인을 대상으로 레시피와 관련 음식 문화를 소개, 참여자들과의 질문과 답변 프로그램 제공

○ K-Food Series 한식 소개 영상 촬영 [8.9. | 온라인]

-K-Food 한식 소개 영상을 3부작 제작, 다양한 한식소개

○ 현지 요리학교 르꼬르동블루 대상 한국 사찰음식 소개 강좌 [8.18. | 온라인]

- 8.15 광복절을 맞이, 현지 요리학교 학생 대상으로 한국 사찰음식 소개하고 한국과 캐나다 간의 실시간 한식 강좌와 질문 답변 프로그램 운영

멕시코

○ 문화외교관 유망주 콘테스트 [8.2.~8.25.]

-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망주 선발 대회

○ 온라인 한국어와 문화강좌 [8월 주중 평일 | 온라인]

- 한식, 세종학당(한국어 강좌), 바둑강좌 등 제공

○ 온라인 전시 <KOREARTE en México> [연중 상시 | 온·오프라인]

- 총 3전시실 구성

○ 제2회 한멕 그림책 번역대회 [8.9.~8.31.]

- 현지인들이 한국과 멕시코의 그림책을 번역해 제출, 평가 후 시상

○ 한인후손 작명 행사 및 강연 [8.15.~8.31.]

- 한인후손을 대상으로 한국식 이름 작명, 강연 진행

○ 광복절 기념 온라인 영화상영회 [8.15.~8.29. | 온라인]

- 광복절을 기념해 온라인 영화 상영회 개최
- 영화 <아이캔스피크>, <박열>, <말모이>, <밀정>, <항거> 중 2개 상영

○ 멕시코 K-Pop 스타즈 온라인 예선 [8.16. | 온라인]

- 경연에 참가할 K-Pop 노래, 댄스팀의 온라인 예선

브라질

○ 지하철 사진 전시 [8.1.~8.31. | 상파울루 지하철 Republica 및 Tatuape 역]

- 코로나19로 침체된 양국 간의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기원하기 위한 전시회이며, 한식과 한국의 주요 관광지인 경복궁 등 소개

○ 흑요석의 한복이야기 : 한복 일러스트 전시 [8.1.~8.31. | 문화원 전시관]

- 한국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의 한복 일러스트의 작품과 현대적으로 해석된 한복과 전통적 한복 전시를 통해 한복의 미를 현지에 소개

○ **한식 사진 공모전** [8.2.~8.15. | 개별 메일, 사회관계망]

- 치킨, 김치, 해물파전, 불고기 등의 한식을 주제한 사진 공모전 개최

○ **온라인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8.2.~8.31. | 세종학당 누리집, 문화원 강의실]

- 실시간 화상 강의 실시, 수강생 총 335명, 매주 화~토 10개 반 운영

○ **온라인 태권도 강좌** [8.5., 8.19. | 문화원 유튜브]

- 현지 태권도 수련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태극 품새 1장 ~ 8장 교육

○ **온라인 K-Dance 강좌** [8.6. | 문화원 유튜브]

- 현지인과 문화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 진행

○ **온라인 한식강좌** [8.8., 8.22. | 문화원 유튜브]

- 현지 재료를 이용해 집에서 한국요리의 레시피를 알려주며, 한식을 처음 접해보는 외국인을 초청해 직접 맛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8.8. 이론편, 8.22. 조리편

아시아

일본-도쿄

○ **한일축제한마당2021 in Tokyo 제휴기획 : 온라인 한국문화 체험교실**
[8.20. | 문화원 누리집]

-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한지공예와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 **2020도쿄패럴림픽 개최 계기 <온라인 한국문화공연 - 평화의 하모니 II >**
[8.17. | 온라인]

- 1부. 시각장애자 피아니스트와 한국인 첼리스트의 무대
- 2부. 첼로, 일본 전통 현악기 고토, 샤쿠하치(피리)의 협연과 수화 공연

일본-오사카

○ 한국문학세미나 [8.7. | 문화원 누리홀]

- 6~8명의 참가자가 선정도서에 대한 감상 발표 등 자유롭게 토론하며 한국문학과 사회에 대한 고찰
- 8.7. 수필, 선정도서 :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김수현 저)
- 8.24. 소설, 선정도서 : 『피프티 피플』(정서량 저)

○ 온라인 필드워크 '오사카 코리아타운' 촬영 [8.10. | 오사카 코리아타운]

- 오사카 코리아타운을 주제별로 나눠 한편 당 5분 내외의 영상을 총 6편 제작, 온라인 공개
- #3. <이쿠노(いくの) 코리아타운과 문화>

○ 관광사진전 <한국 여행의 추억> [8.10.~8.21. | 문화원 미리내갤러리]

- 코로나19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왕래가 어려운 시점에 한국의 풍경과 한국을 여행하는 인물이 담긴 사진과 VR을 통해 보고 체험하며 즐기는 사진전 개최

○ 온라인강좌 '단소' [8.2.~8.15. | 온라인]

- 국립국악원 단소 강사을 초빙해 실시간 온라인 강좌 진행

○ 2021년도 7월 학기 '세종학당 한국어강좌' 운영 [8.3.~8.31. | 세종학당 강의실]

- 초·중·상급반과 회화 강좌 등 총 21개 강좌 개설, 174명 수강

○ SAC on SCREEN 사업일환 연극 <달래이야기> 상영 [8.21. | 문화원 누리홀]

- 예술의 전당 협업사업으로 연극 <달래이야기> 상영회 개최, <달래이야기>는 2016년 PAMS 초이스와 같은 해 열린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 대표 연극에 선정

○ 2021년도 'K컬처 아카데미' [8.29. | 문화원 누리홀]

- 총 11개 문화강좌 운영 : 한국민화, 가곡, 보자기&매듭, 전통무용, 가야금, 판소리, 민요, 장구, 태권도, 한지공예, K-Pop 커버댄스

○ 2021년도 가곡연구회 [8.29. | 문화원 누리홀]

- 재일교포 성악가 고월미씨가 발족, 매월 1회 개최

중국-북경

ㅇ 한국어 여름특강 [8.3.~8.28. | 문화원]

- 초·중급 회화, 비즈니스 한국어, 한류 한국어 등 8개 반 운영으로 135명 수강생 대상, 온·오프라인 강좌 개설

ㅇ 한국영화 정기상영회 [8.6.~8.28. | 문화원 지하 1층 공연장]

- 8.6. 공포영화 <클로젯> 상영
- 8.13.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
- 8.20. 공포영화 <사자> 상영
- 8.27. 공포영화 <곡성> 상영

ㅇ 서화예술교류전 [8.9.~8.15. | 문화원 지하 1층 전시장]

- 대한민국공공미술협회와 중명련문화발전유한공사 협업, 작가 24명 참여 작품 80여 점 전시

중국-상하이

ㅇ 제주해녀문화·관광 사진전시 개최 추진화예술교류전 [계속]

ㅇ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관련 유관 기관 협업 추진 [계속]

- 2021년 문화원 대내·외 행사 시 한지, 전통놀이의 홍보 구역과 체험행사 개최

ㅇ 한식문화교육 운영 관련 준비 [8월~12월 | 문화원 2층 대장금실, 외부행사장]

- 주상하이한국문화원과 한식진흥원(밀키트 사업부분)의 공동주최로 온·오프라인 강좌 방식 진행, 외부 행사 홍보

ㅇ 제32기 세종학당 운영 [8월 중 | 온라인]

- 세종학당 교제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한글 교육, 총 8개 반 운영

ㅇ 안휘성 한중 우호교류 공연 추진 [계속]

- 한·중 오케스트라 음악회

중국-홍콩

한글날 디자인 공모전 [8월 중 | 문화원 전시실, 온라인]

- 한글날 맞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디자인 공모전

2021 한글 서화전 [8.2.~8.14. | 문화원]

- 한글을 주제로 30명 작가들의 전통 서예와 현대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

한국-중국 서예 교류전 [8.2.~8.14. | 문화원]

- 한국역대문집총서(韓國歷代文集叢書)와 사고전서(四庫全書) 문헌에 수록된 한·중 옛작가들의 작품 50점 전시

세종학당 여름 특별학기 한국어 강좌 [8.2.~8.21. | 온라인]

- 현지인 수강생 대상으로 실시간 화상 한국어 수업 진행
- 한국어 입문, 여행 한국어와 토픽 초급반 등 총 11개 반 운영

K-pop Zone Red Velvet 행사 [8월 | 문화원 K-pop Zone]

- Red Velvet 홍콩 펜클럽이 주최하는 사진전과 응원행사

K-Food Open Kitchen 프로그램 [8월 | 온·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연계 한식 강좌

인도네시아

<한국의 민화> 온라인 VR 전시회 [8.2.~8.31. | 온라인]

- 한국전통민화와 현대민화 100점과 관련 영상을 온라인 가상공간에 전시

한국관광지 홍보영상 '버추얼 트레블'토크쇼 [8.3. | 온라인]

- 한류 유튜버 '유나누나'를 초청해 영상 제작 관련 토크쇼

한·인니 예비역 초청, 밀리터리 토크쇼 [8.6. | 온라인]

- 한국과 인니의 예비역 유튜버를 초청해 각국의 군생활과 훈련 모습 등에 관한 이야기

○ **한류 인플루언서 초청, 한류 트렌드 토크쇼** [8.2. | 온라인]

- 한류 인플루언서와 함께 한류 콘텐츠의 경향을 알아보는 토크쇼

○ **드라마속 K-뷰티 영상과 사진 공모전** [8.15.~8.31. | 온라인]

- 한국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화장기법을 응모자가 직접 시연한 사진 또는 영상 공모전

○ **어린이인형극 <달래이야기> 상영** [8.13. | 온라인]

- 넌버벌 어린이 인형극 온라인 상영

○ **한국전통놀이 체험 토크쇼** [8.9. | 온라인]

- 윷놀이 등 한국 전통놀이를 소개

○ **떡 홍보체험과 소외계층 떡 나누기 사업** [8.20. | 온·오프라인]

- 한국 떡을 소개하기 위해 소규모 현지인들을 대사응로 떡 2종 만들기 체험행사, 한식체험 기회 제공
- 자카르타 근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식용 떡 나눔

○ **한식당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한식공모전**(8~9월/온라인)

- 현지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내 한식당 체험, 한식과 관련한 공모전을 진행, 수상자와 응모자들에게 자카르타 한식당협의체 한식당 바우처 제공

○ **인도네시아 K-Pop 아카데미** [8.16.~8.31. | 온라인]

- 인니의 주요 도시 10곳에 온라인 K-Pop 댄스커버와 싱커버 아카데미 운영

○ **K-Explore 네이버 웹툰체험관 비대면 답사** [8.27. | 온라인]

- 한국 웹툰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네이버 인기 웹툰을 현실 공간에서 만나 수 있는 복합 체험관 '네이버 웹툰 체험관 오프라인 OFFLINE'을 비대면으로 답사해 소개하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원과 별별스타 동부자와** [8.28. | 온라인]

- 동부자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국문화홍보와 한류 콘텐츠 경연대회 개최

○ **경북과 인니사무소가 함께하는 토크쇼** [8.25. | 온라인]

- 경북지역 먹거리와 관광지 홍보

○ **제1기 독서동아리 모임** [8.31. | 온라인]

- 지난 6월 최종선발된 '독서동아리' 제1기 선발인들과 한국어 서적을 1권 선정해 읽고 감상평을 나누는 독서동아리 모임

ㅇ 8월 인니 한류팬 초이스 어워드 [8.30. | 온라인]

- 7월 한달 간 방영된 K-Pop과 드라마 대상 인기투표 결과방송

인도

ㅇ 2021 전인도 K-Pop Contest (1차 온라인 예선) [8.2.~8.16. | 온라인]

- 인도 전역의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예선 진행, 동북부 지역에 편중되있는 '한류 콘텐츠'소비를 전 지역으로 확장 목표

ㅇ Belle du Jour [8.2.~8.21. | 온라인]

- 2021년 첫 번째 기획전시이며, 재능있는 현지작가 발굴과 역량 강화
- 인도작가 G.S.Budhwar의 하루 중 아름다운 순간을 미학적으로 페인팅한 작품들 소개

ㅇ 6.25 기념전시 [6.25.~8.25. | 온라인]

- 한국전쟁 당시 인도에서 파견된 의료지원부대의 참전용사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전시
- 한국과 인도 간의 역사적 동질감 형성, 미래를 향한 동반자 관계 강화를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인식 제고

ㅇ 온라인 영화상영회 [8.7.~8.8. | 온라인]

- 인도 내 한국영화와 영상물이 한류의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문화원 최초로 진행되는 온라인 영화상영회 개최
- 박선주 감독의 <비밀의 정원>, 이재용 감독과 윤여정 배우의 <죽여주는 여자> 상영

ㅇ 한국-인도 우정 온라인 퀴즈 경연대회 [8월 중 | 온라인]

- 문화원 누리집의 한국 소개 코너와 해홍원 발간지 『Facts About Korea』를 소재로 인도 전역의 중고등학생 대상 한·인도 친선 퀴즈 경연대회, 학교별·도시별로 전체 국가 우승자 시상 (한국방문 등)
- 1차 웹 사이트 퀴즈, 2차 및 3차 온라인화상을 통한 퀴즈 형식 진행

ㅇ 인도 대학(원)생 한인도 친선 에세이 경연대회 [8.2.~8.15. | 온라인]

- 인도 국립대학(차우다리 차란 싱크 대학)과 공동주최로 '한인도 문화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언론학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에세이 경연대회 개최
- 8.15. 한·인도 동일 독립기념일에 수상자 발표 예정

베트남

○ 코로나19 극복 디자인 콘테스트
[8월 중 | 문화원 페이스북]

-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창작대회 온라인 형식 추진
- 8월 시상식 진행 예정

(출처 : 한국문화원)

○ 오늘도 나의 사랑, 한국어 영상 제작과 확산 [8월 중 | 문화원 페이스북]

- 한국어 강의 릴레이 영상 제작과 문화원 SNS 채널을 통한 확산
- 8.6. 전통시장 19편 업로드, 8.10. 전통음악 20편 업로드

○ 코로나 19 편지 영상 제작과 확산 [8월 중 | 문화원]

-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교류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격려하는 메시지 영상 편지 몰래카메라 제작 (1편)

○ 한국문화원이 간다 [8월 중 | 문화원]

- 한국과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 영상 촬영, SNS 업로드
- 7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거주 베트남인 유튜버 협력 영상 편집
- 8편, 체험 삶의 현장편 영상 촬영

○ 2021 K-pop Lovers Festival
[8월 중 | 문화원]

- 베트남 전역의 K-Pop 팬 대상 커버 공모전, 온·오프라인 형식 추진
- 8월 중 호치민, 다낭, 하노이 지역별 예선과 결승

(출처 : 한국문화원)

○ 한복 홍보 캠페인 운영 [8월 중 | 문화원]

- 한복의 다양한 모습을 한복제작 일일인턴체험, 한복체험 브이로그 등의 영상콘텐츠로 제작
- 8.4. 전통한복편 문화원 SNS 채널 송출 예정
- 8.18. 현대한복 제작 일일체험 문화원 SNS 채널 송출 예정

ㅇ 나에게 한국어란 인터뷰 영상 제작과 확산 [8월 중 | 문화원]

- 한국어를 통해 현지인들의 인터뷰 영상 제작 SNS를 통해 확산,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총 12편 제작)
- 8.2. #5. 치과 간호사편
- 8.9. #6. 나에게 베트남어란 편
- 8.16. #7.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편
- 8.26. #8. 체험 삶의 현장 편
- 8.30. #9. 병원 의사편

ㅇ 한국문학 도서 소개 영상 제작과 확산 [8월 중 | 문화원 페이스북]

- 베트남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도서 영상 제작 (총 8편 제작), SNS 채널 송출
- 8.7. #4. <바리데기> (황석영 저) SNS 송출
- 8.21. #5. <구름빵> (백희나 저) SNS 송출

ㅇ 한국에서 온 영상 제작과 확산 [8월 중 | 문화원 페이스북]

-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인과 협력해 '베트남 가족 및 지인에서 전하고 싶은 한국 소식'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 제작, SNS 채널 활용 업로드 (총 21편)

ㅇ 2021 베트남 출간 한국 도서 독후감 공모전 [8월 중 | 문화원]

- 2020년 문화원 최초로 한국문학과 도서를 주제로 한국 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베트남 내 대표적인 한국 독후감 공모전으로 발전 모색
- 8.9.~9.8. 모집공지

ㅇ 2021 베트남 전국 한국어 말하기대회 지역별 본선 개최 [8월 중 | 하노이와 호치민 소재 대회장]

-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전국 단위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 참가분야 : 일반부(전공/대학교), 일반부(비전공/세종학당), 중·고등부(한국어 시범과목 운영학교)
- 8월 지역별 본선(북부/남부)

태국

ㅇ 세종학당 및 한국문화강좌 [8월 중 | 온라인]

- 세종학당 전 강좌 개설
- 가야금 중급반, 단소 초급반

○ **KCC On Air 태국 어머니의 날 맞이 한류스타 뱀뱀 어머니 초청 토크쇼**
[8.12. | 문화원 사회관계망]

- '태국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해 현재 솔로로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한 뱀뱀의 어머니를 초청해 뱀뱀을 한국에서 데뷔까지의 과정과 한국에 대한 토크 진행

○ **태권도 온라인 강좌 : 태권도 홈트레이닝** [8.13.,8.27. | 온라인]

- 태권도 홈트레이닝부터 태권체조 등 팬데믹 상황에서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는 태권도 콘텐츠 제작과 상영

○ **예술의 전당 SAC On Screen <달래이야기>** [8.20. | 문화원 사회관계망]

- 예술의 전당 SACOn Screen 프로그램 중 넌버벌 인형극 <달래이야기> 온라인 상영

필리핀

○ **전통문화가 있는 목요일(Traditional Thursday)** [8.5.~8.26. | 문화원 사회관계망]

- 한복의 역사, 현대한복, 올바른 한복 착용법 등 소개

○ **8월 온라인 스크리닝 행사(전통 공연)** [8.8.~8.29. | 온라인]

- 전통 공연 온라인 진행, 국립국악원 제작의 탈춤 영상 활용

○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숏터뷰 : #4. 한식** [8.10. | 온라인]

- 현지에서 한국문화가 끼친 선한 영향력과 한국문화의 인기 현황에 대한 숏터뷰 영상 제작, 매달 10일 배포 예정(총 6편)

○ **문화원 서포터즈 9기 오리엔테이션** [8.13. | 온라인]

- 문화원 서포터즈 9기 오리엔테이션 개최

○ **문화원 '국유화'신규 건물 이사** [8.30.~8.31.]

- 문화원 국유화 신규 건물 사무실 이사, 정식 개원 11월 중순 예정

이란

○ K-Pop Instrumental Cover 대회 [8.5.~8.22. | 온라인]

- K-Pop 음악을 주제로 하는 연주 대회

○ 한국 소개 온라인 생방송 [8.19. | 온라인]

- K-Pop, 한국관광, 한국 유학, 한국음식, 한복 등의 주제로 인스타그램 통해 송출

○ 한류 팬클럽 세미나 개최 [8.29. | 온라인]

- 테헤란, 카라지, 이스파한 등의 이란 주요도시 거주 한류 팬클럽 리더가 참가하는 한류 소개 세미나 개최

UAE

○ 정기기획전시 <조선 왕실의 소망과 바람, 궁궐 장식그림>

○ 여름방학 그림일기 공모전

○ 2021 태권도 강좌 운영

○ 2021 세종학당 특별 3학기 온라인 한국어 강좌 운영

○ 2021 한국영화제 [8.19.~8.29. | 온라인]

- 한-UAE 문화상호교류의 해 기념 한국영화제 온라인 진행
- 장편영화 6편, 단편선 2편 상영

○ 2021 문호강좌(한식) 운영 [8.23.~8.30. | 문화원 수라간]

- 현지인 대상으로 한식 강좌 개설해 여름철 디저트인 팥빙수 소개, 체험행사 진행

호주

○ 문화원 방문프로그램 [8.1.~8.31. | 문화원]

-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공립학교 방문을 통해 가이드투어, 한옥소개, 전통놀이 및 한복체험, 각종 만들기 진행
- 기존 8.5. 잠정연기, 사립학교(Westmead Christian Grammar School) 방문
- 8.10.~8.11. 공립학교(Chatswood Public School) 방문
- 8.18.~8.19. 공립학교(Riverstone High School, NSW School of Languages) 방문
- 8.24. 공립학교(Normanhurst Boys High School) 방문
- 8.31. 공립학교(West Ryde Public School) 방문

○ 요리학교 학생 대상 한식요리 콘테스트(잠정 연기)
[8.5. | TAFE NSW Ryde Campus]

- 김치 주제 활용 요리 콘테스트 등

○ 한호예술재단 미술 공모전 [8.6.~8.31. | 문화원]

- 제8회 한호예술재단 미술 공모전의 결선 진출자 작품 전시와 시상식
- 우승작 1명(2만 호주달러)과 2등상 2명(각 2,000 호주달러) 시상

○ 한식홍보(비빔밥) 총영사 관저 행사 [8.24. | 시드니총영사관저]

- 현지 요리사와 언론인 8명을 관저에 초청해 비빔밥 완성 과정 3분 이내 영상 제작, 비빔밥 포함 오찬 행사, 한식 홍보 관련 의견 교류

○ 한국문학 북클럽 [8.26. | 온라인]

- 손원평 장편소설을 주제로 북클럽 행사 진행

나이지리아

○ 극작가협회 MOU 체결식 진행 [8월 둘째 주 중 | 문화원 스튜디오]

- 아부자 소재 극작가협회와 문화교류를 위한 MOU체결을 위한 체결식 행사 예정

○ National Gallery MOU 체결식 진행 [8월 둘째 주 중 | 문화원 스튜디오]

- 아부자 소재 National Gallery와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한 MOU체결을 위한 체결식 행사 예정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8.9.~8.12. | 문화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어 교육의 품질 향상과 한국어 교원 간 협력망 구축을 위해 '2021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개최

○ 한국문화의날 : 복면가왕 노래자랑 [8.18. | 문화원 스튜디오]

- 참가자들이 직접 복면을 제작해 자신이 만든 복면을 쓰고 노래 경연 참가

○ 광복77주년 기념 한국영화제 [8.27.~8.28. | 라고스 영화관]

- 광복77주년 기념의 한국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나이지리아 유명 영화배우, 영화관계자, 교민 등 초청
- 영화 <동주>, <암살>, <우리는 형제입니다> 등의 3편 상영예정

○ 세종학당 여름강좌 [8.31. | 한글교실]

- 세종학당 여름학기 8주 과정 마지막 수업,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수업 진행

Vol.18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2021년 8월호

발행처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발행일
2021년 8월 10일

발행인
박정렬

기획 및 편집 총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이유림
www.kofice.or.kr

외부 집필진
오지훈 | 주스페인한국문화원장
임대근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디자인
studio 213ho
www.213ho.com

ISSN 2713-9387

문화체육관광부 kocis 해외문화홍보원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FICE

문화체육관광부 kocis 해외문화홍보원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FICE